

성평등 의제 국내외 확산 프로젝트

김창연 문기현 이보미

SWF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I 성평등 기념사업 운영

1. 과제 추진배경	3
2. 과제목적 및 추진방향	5
3. 과제목표	6
4. 전년 대비 개선사항	6
5. 과제개요	7
6. 세부과제 진행과정 및 추진실적	8
7. 사업평가	35
8. 향후 개선계획	38

II 성평등 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

1. 과제배경	43
2. 과제목적	46
3. 과제목표	46
4. 전년 대비 개선사항	47

5. 과제개요	48
6. 세부과제 진행과정 및 추진실적	50
7. 사업평가	73
8. 향후 개선계획	76

부록 _77

Ⅲ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1. 과제배경	85
2. 과제목적	86
3. 과제목표	87
4. 전년 대비 개선사항	87
5. 과제개요	88
6. 세부과제 진행과정 및 추진실적	89
7. 사업평가	97
8. 향후 개선계획	103

I

성평등 기념사업 운영

1. 과제 추진배경
2. 과제목적 및 추진방향
3. 과제목표
4. 전년 대비 개선사항
5. 과제개요
6. 세부과제 진행과정 및 추진실적
7. 사업평가
8. 향후 개선계획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 과제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07년 설립 이후, 여성주간 기념사업을 비롯하여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와 여성정책박람회에 이르기까지 여성 활동을 기념하고 성평등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음
- 여성주간 기념행사 : 2007년 여성정책포럼을 시작으로 기념 콘서트, 작품전시, 미디어캠페인, 시민 심리참여극, 공모전 및 수상자 사례 발표 등 시민참여형 행사 진행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 2010년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영화 상영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회, 테마전시, 영화, 연극,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행사 진행
- 여성정책박람회 : 2013년 서울시 정책박람회에 참가하여 시민과의 소통, 의견수렴 및 반응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제고함. 2014년~2015년은 서울시 정책박람회 기간 중 “여성정책박람회”를 별도 기획, 운영하여 시민이 여성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재단 주요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과의 소통·공감을 확대함



2015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2015 여성주간 기념행사



2015 여성정책박람회

- 민선 5기 동안 서울시는 소통과 신뢰를 기조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 왔으며, 민선 6기 역시 거버넌스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치시정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재단은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현장 중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및 재단의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 소통하고자 함
- 2016년도에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여성주간(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6 여성정책박람회 등 3개의 성평등 기념 행사를 개최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1(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양성평등주간)
-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제 27조(여성주간 행사 등), 제32조(시민참여)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4(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조 6(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정관 제4조 6(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2. 과제목적 및 추진방향

□ 과제목적

- 여성활동을 기념하고 성평등 의제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여성시민이 만들어 온 역사를 체감하고 성평등 가치 확산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 재단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및 체험기회 제공

□ 추진방향

- 함께 축하하고 토론하는 기념의 장 마련
 - 여성 관련 기념일(주간)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한편, 여성 관련 이슈의 개선·해결 방안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 마련
- 시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과 정책이 연대하는 협치의 장 운영
 - 생활 속에서 평등을 만들고 실천하고 있는 주체(agency)로서의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념행사 추진
 - 시민이 청중으로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행사 운영
- 탈권위적이고 수평적인 평등의 장 실현
 - 높은 무대, 일방적 내용 전달을 위한 발표자와 청중의 지리적 구분 등을 지양하는 탈권위적인 행사장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3. 과제목표

구분	목표	실적
성평등 기념행사 기획 및 운영	3회	○ 3회 추진 완료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 여성주간 기념 「여성안전 해결책·방」 - 2016 여성정책박람회
여성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참여 진수	9개소	○ 12개소 협력·참여 - 한국여성민우회,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굿네이버스, 마포구청,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와일드블랭크프로젝트,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리벤지포르노방지단체 RPO, 차일드세이프, 생각나무BB센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4. 전년 대비 개선사항

□ 산재되어 있던 성평등 관련 대규모 행사 및 기념사업 통합 추진

- 전년도에 경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와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여성활동을 기념하고 성평등 가치 확산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들이 각각 다른 단위사업 내 산재
- 연간 추진해야 할 성평등 관련 대규모 행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 시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전년도 3·8 세계여성의날 및 여성정책박람회, 일자리 현장 열린마루 등은 여성단체 및 풀뿌리 활동가, 여성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프로그램 만족도 및 사업 효과성 제고

- 올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전문가 및 행정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및 협치 실현
- 시민이 청중이 아닌 주요 발언자로 참여하는, 기획 단계부터 여성시민 및 여성활동가와 함께 하는 행사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고자 함

※ 전년도 사업 평가

- 시민참여형 행사를 통해 여성시민의 관심사가 드러났으며 추후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 필요
- 여성의 현실, 경험, 희망 등을 잘 보여주는 기획이었음
- 다양한 세대, 다양한 영역, 다양한 주제에서 시민개인이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기회 더 많아져야 함

▶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의 기념사업을 구상하여 시민참여 확대

5. 과제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 18,300천원
- 추진방법
 - 사업 추진방향 설정 : 전문가 착수자문회의
 - 사업 세부계획 수립 : 착수보고서 및 각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 계획서 작성
 - 2016 여성정책박람회의 경우 전문가 중간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여성단체 활동가 중심의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시민 대상 성평등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 타기관 교류실적

프로그램명	교류기관	교류내용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① 한국여성민우회 ②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③ 굿네이버스 ④ 마포구청 ⑤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⑥ 와일드블랭크프로젝트	- 토론회 시민발제 내용 구성 협조 - 시민발제자 선정
여성주간 기념 「여성안전 해결책방」	⑦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⑧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서울해결책방 공동주최 (사회혁신담당관-7062, 16.06.20)
2016 여성정책박람회	⑨ 리벤지포르노방지단체 RPO ⑩ 차일드세이프 ⑪ 생각나무BB센터 ⑫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 안전공감Talk 세부의제 및 프로그램 기획 - 의제별 모둠 구성 및 행사 당일 모 둠별 토론 진행

6. 세부과제 진행과정 및 추진실적

1) 추진과정

□ 과제 진행과정 ① : 착수자문회의

- 일시 : 2016년 3월 30일(수), 10:00~12: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5층 컨퍼런스룸
- 참석 : 총 5명
 - (1) 외부 : 김수정(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이해경(서울시 젠더전문관)
 - (2) 내부 : 김창연 팀장, 이현주 사원, 이주영(이상 여성정책실 공동체팀)



전문가 착수자문회의

○ 논의안건

- 2016년 시민 대상 성평등 기념사업 전반 검토
- 여성주간(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2016 여성정책박람회 세부내용 검토 및 구체화

○ 주요내용 및 주요반영사항

주요내용	주요반영사항
- 참여하는 시민들이 흥미를 느끼면서도 성평등 가치와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챙겨갈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시민들이 단순 관람이 아닌 정책 토론 및 제안서 작성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하면서 실제 정책이슈를 직접 토론하도록 운영
- 자신의 차별 경험이나 데이트 폭력과 같이 청년층 세대가 관심을 갖는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의견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차별토크쇼’ 등 다양한 기획 가능	-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정책제안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 여성정책박람회의 경우 생애주기별 여성가족 관련 서울시 정책을 모아놓고 각각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확대 필요성 여부, 존속 여부 등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 가능	-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및 관련 시민 아이디어에 대한 거리투표 기획, 운영 - 정책 홍보 및 각각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 과제 진행과정 ② : 중간심의

-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11:00~13: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5층 컨퍼런스룸
- 참석 : 심사위원 3인 및 사업담당자 1인

○ 주요내용 및 주요반영사항

심의항목	주요내용	주요반영사항
기획 적정성	- 세부사업 연계 보완 필요 - 사업 주제 선정을 위한 세밀한 논의 필요	- 익년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세부 프로그램 간 연계성 및 확장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포함하여 기획 예정

심의항목	주요내용	주요반영사항
	- 여성들이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이슈와 참여적 방법론 채택이 유의미함	- 올해 성평등 기념사업은 서울시 여성 안전정책 및 실천에 대한 공유 → 보완책 마련 → 시민의견수렴 및 세부 보완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됨
수행과정 체계성	- 착수자문회의 시기가 늦었음 - 시민주체 참여 확대라는 기획이 실제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바람	- 익년도 사업추진 시 착수자문회의 시기 보완 - 시민 주체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하고 정책제안서를 작성, 서울시와 공유하는 등의 실천이 가능하였음
내용 전문성 및 충실성	- 시민참여사업 기획을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필요 - 여성안전이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 적절하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에서 안전의 주제를 특정화하지 않고 다양한 시민이 사례를 발표한 점 높이 평가 - 안전이슈와 안전정책이 각 프로그램에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구현됨	- 향후 시민참여사업 기획을 위한 벤치마크 사례 발굴 및 현장자문 등 추진 예정
결과 효과성 및 선도성	- 측정가능한 성과목표 외에 포괄적인 방식의 목표 설정 필요 - 서울시 정책 홍보효과 있음 - 시민참여를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 긍정적 - 질적 성과 측정도구가 개발되기 바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소셜 임팩트 제고 노력 필요	- 시민들의 의견 및 정책제안을 서울시와 공유, 실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질적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도구 고민 필요
기타	- 시민참여의 수준과 단계를 확대 진행할 것을 제안 (예 : 시민기획단) - 본 사업을 다년에 걸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되길 기대함	- 시민참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부 프로그램에서 기획단 운영을 시범 실시함 - 익년도 사업에서는 시민기획단 구성 및 운영을 보다 본격화할 예정

□ 과제 진행과정 ③ : 여성주간 기념「여성안전 해결책·방」 시민 참가자 사전모집 및 정보공유 게시판 운영

- 기간 :

- (1) 시민 참가자 사전모집 : 2016년 6월 7일(화) ~ 6월 20일(월)
- (2) 정보공유게시판 운영 : 2016년 6월 20일(월) ~ 행사일

- 방법 : 공식 웹페이지 활용(<http://seoulideaexpo.org/2016/solution>)

○ 시민 참가자 사전모집

- 해결책·방은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토론
- 전문가 및 공무원은 주최측에서 초청하되, 시민 참가자는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신청 접수

○ 정보공유 게시판 운영

-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과 전문가, 공무원들이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정보격차 없이 해결책·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여성안전 관련 통계, 연구자료, 정책현황자료 등 업로드, 공유

번호	제목	공유자	날짜
01	종교로 보는 여성안전	공	2016.06.20
02	17시30분부터 열리는 여성안전 '해결책·방' 사전모집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자살 범죄 연구 논문 2편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0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자살 범죄 연구 논문 1편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05	17시30분부터 열리는 여성안전 '해결책·방' 사전모집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자살 범죄 연구 논문 2편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자살 범죄 연구 논문 1편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자살 범죄 연구 논문 2편	공	2016.06.20
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자살 범죄 연구 논문 1편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10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11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12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13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14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15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16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17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18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19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20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21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22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23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24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25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26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27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28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29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30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31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32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33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34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35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36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37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38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39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40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41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42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43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44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45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46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47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48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49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50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51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52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53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54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55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56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57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58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59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60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61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62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63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64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65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66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67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68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69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70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71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72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73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74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75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76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77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78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79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80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81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82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83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84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85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86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87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88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89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90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91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92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93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94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95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96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97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98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99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100	여성안전 관련 통계자료	서울미래공간특파원	2016.06.20

□ 과제 진행과정 ④ : 여성정책박람회 퍼실리테이터 사전 기획회의

- 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10:00~12: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5층 소담1실
- 참석 : 총 7명
 - (1) 외부 : 이화운(노인 성인권 강사), 안순화(생각나무BB센터), 김재정(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하예나(리벤지포르노방지단체 RPO), 최경숙(차일드세이프)
 - (2) 내부 : 김창연 팀장

○ 논의안건

- 2016 여성정책박람회 전체 행사 프로그램 공유 및 안전공감Talk 세부 프로그램 기획
- 안전공감Talk 추진배경 및 진행방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토론
- 안전공감Talk 모듈별 논의 의제(안) 사전 선정 및 행사 당일 토론용 키트 점검

○ 반영사항

- 세부프로그램 순서 및 세부 일정별 시간 조정 등 논의 결과 반영
- 행사 당일 퍼실리테이터의 주요 역할 설정
- 각 모듈별 토론 의제(안) 선정, 토론용 키트 활용 방법 등 결정

2) 추진내용

□ 세부과제 추진내용 ①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 일 시 : 2016년 3월 8일(화), 13:30~18: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로비 및 국제회의장
- 참 석 : 여성단체 활동가, 풀뿌리 활동가, 정책연구자, 여성시민 등 200여 명
- 주 제 : 『I.SAVE.SEOUL - 우리가 안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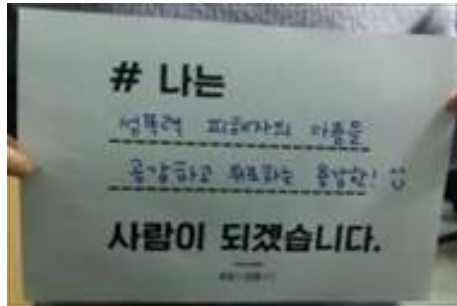
시민 발제 모습



시민 발제 모습



시민 퍼포먼스 결과 공유



시민 다짐문구

○ 프로그램

구분		내용
토론회	오프닝	<사회> 황금명륜 (같이교육연수원 대표) <개회사>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환영사>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PT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안전을 위한 작지만 큰 시작
	시민 발제	<토론회 1부> ① 나는 폭력피해 여성을 지지하는 ‘첫 사람’입니다 - 박수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② 나는 폭력위기 여성을 지나치지 않는 ‘시선’입니다 - 김석 (노량진지구대 대장) ③ 나는 아동의 위험을 예방하는 ‘착한 신고자’입니다 -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팀 과장)
		<휴식> 동영상 It's On Us 상영
		<토론회 2부> ④ 나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 한석구 (마포구청

구분	내용
	생활보장과 주무관) ⑤ 나는 안전한 공간의 ‘시작’입니다 - 심현정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Safe Campus 담당자) ⑥ 나는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는 여성’입니다 - 홍진아 (와일드블랭크 프로젝트 포장이사) 정책공유 당신 곁에,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2.0 - 김창현 (서울시 여성정책기획팀장) 공감마당 <자유토론> 청중 질의응답 연대의장 당신과 나를 잇는 연결의 힘 - 시민 참여 퍼포먼스 결과 공유
부대 전시	인포그래픽전 : 여성안심특별시,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해외사례포스터전 : 여성과 도시안전 해외사례전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손으로!’

○ 부대전시 (※ 본 전시는 「성평등도서관 여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추진)



인포그래픽전



해외사례전

- 인포그래픽전 : 서울여성이 느끼는 도시안전을 수치로 보여주고 안심귀가스 카우트, 안심지킴이집, 여성안심택배함 등 서울시 주요 안전정책을 주제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 전시
- 해외사례전 : 여성을 위한 도시 안전 정책 및 여성 시민의 주도적인 안전도시 활동 해외 사례 소개

○ 시민발제 주요내용

· 나는 폭력피해 여성을 지지하는 ‘첫 사람’입니다

- ‘첫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와 재판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는 활동임.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이후 지정 좌석, 발언 기회 등의 실질적 보장정도, 법정 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발언 유무 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한 후 인터넷 후기를 올려 ‘첫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문제 의식을 공유함
- 실제로 피고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피해자 개인정보를 변론과정에서 노출한 사례, 법정에서 검사가 조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 ‘첫 사람’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음. 우선 재판부의 경우 판사·검사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변론 과정 중 인신공격적 발언을 자발적으로 주의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이었는지 확인하는 재판부 자체 설문조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성폭력전담재판부 운영으로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제도적 소외감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성폭력 피해 극복 의지를 키우게 됨

· 나는 폭력위기 여성을 지나치지 않는 ‘시선’입니다

- 2015년 초 안산 아내살인사건 등으로 가정폭력 문제해결에 경찰대처가 미흡했다는 비난들이 속출함. 그러나 현장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 업무 과중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음. 이렇듯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맹점들을 보완해결하고자 하였음
- 사건현장에서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 : 사건현장 출동 후 피해자가 숙내를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1366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보완 → 현장 위급사항 처리 후 피해자와 1366과 연결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1차적으로 전화상담을 진행
- 2014년 노량진지구대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85건에서 2015년 100건으로 감소하고 두 번 이상 신고하는 경우도 50% 이상 감소하여 재범 발생이 감소하였다고 봄. 또한 형사 입건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문기관(1366)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나타난 결과로 봄
- 제도 확대방안 : 지구대 단위에서 경찰서 단위로 확대를 꾀하고자 하나 연계, 처리가 가능한 기관이 부족함.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해당시스템이 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나는 아동의 위험을 예방하는 ‘착한 신고자’입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전문 보호기관이 생긴 2000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신고 건수가 더욱 증가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료인, 교사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군의 경우 아동학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외 누구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 가능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 내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자
 - 주변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자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학교에 갈 시간에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거나 미심쩍은 상처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면 신고하자 : 112로 신고하여 경찰과 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상담
 - ‘착한 신고’ 어플리케이션 :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착한 신고’ 어플리케이션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 나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3가지 요소 : 안전한 환경, 폭력에 대한 민감성, 협력 등의 공동체성
 -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사례
 - 안전지도 만들기 : 지역 사회 내 불신이 많았던 사업. 단순 제작에서 벗어나 마포구 내 아동전문기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진행. 아이들이 직접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을 기르도록 함. 안전하지 못한 지역은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개선
 - 대상별 안전교육 : 어린이, 여고생, 학부모, 사회복지사 등 특정대상·영역별로 안전교육을 진행
 -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캠페인
 - 1) 폭력방지에 대한 성인 활동이 중요 :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초등학교 등에서 성폭력 교육, 북아트 프로그램 등을 진행
 - 2) 안전 사각지대 관리 : CPTED를 진행했던 교수님과 연결하여 당인리 발전소 등 위험지역을 없애고자 함
 - 3) 지역주민이 앞장서는 프로그램 : 매주 밤마다 순찰을 돌고 한 달에 한번 파출소 경찰과 함께 순찰
 - 프로그램의 중점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었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음
-

· 나는 안전한 공간의 '시작'입니다

- 동국대학교는 2월 학기 초 학생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행하는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이슈가 되었던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음.
-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 활동 예시
 - 캠퍼스폴리스가 학교 주변 안전 순찰 진행 : 화장실 뿐 아니라 학교 위치 특성상 언덕, 반 지하 등에 설치된 몰카 범죄 대처
 - 몰카 탐지 장치를 구매하여 학내 화장실 전수 조사를 실시 →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음
 - 순찰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의 두려움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동시 진행 → 기계 오작동 시 학생들은 몰카가 발견되었다고 인지하고 불안해할 수 있음

· 나는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는 여성'입니다

- 종편 방송프로그램에서 남성연예인 '여성들이 설치고 노는 것이 짜증난다' 라는 발언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활동을 시작
- 10년 지기 친구와 4월 21일 첫 회의 진행 후, 26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고 4월 28일과 5월 1일 판매를 시작함. '예쁘게 만들자' 라는 모토로 에코백 1,000개를 판매하였고 그 후 티셔츠, 파우치까지 아이템 종류를 확대
- 제품에 새겨지는 팔호(블랭크)에는 소비자 개인이 좋아하는 뱃지나 인형 등을 달아 의미를 확장하고 여성운동과 사회적 경험이 연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음
- 판매 수익을 '한국여성의전화'에 기부하자 감사의 뜻으로 브로슈어 엽서 등을 받았고 이를 제품에 함께 넣어 발송하는 식의 연대를 지속하였음. 이런 식의 느슨한 연대를 위한 행동들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임

□ 세부과제 추진내용 ② : 여성주간 기념「여성안전 해결책·방」

□ 「해결책·방」 추진 배경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경청 및 대화 프로그램(원탁회의, 타운홀미팅, 광장은 시장실, 시민 시장실,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을 진행해 옴. 이제 시민 제안을 넘어 시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민참여 정책회의 모델이 필요함. 이에 특정 사회 현안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서울형 정책회의 모델인 <해결책·방>을 진행함

- 「해결책·방」의 의미 : “해결책(策)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방”이라는 의미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담은 책들이 있는 책방(冊房)의 의미가 결합된 명칭

- 일 시 : 2016년 7월 3일(일), 10:00~18:00
- 장 소 : 사회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
- 주 최 :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에서 Pre-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추진한 「서울해결책·방」을 공동주최하고 재단은 「여성안전 해결책·방」을 운영
- 주 제 : 모든 여성이,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서울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확대해 옵니다
 - 특히 2016년도부터는 기존의 여성안전정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최신의 트렌드와 성인지 관점을 강화한 「여성안심특별시 2.0」을 발표, 추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은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의 위협에 얼마나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줌
- 이처럼 여성안전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이슈를 동원하며 지속되고 있어 여성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음
- 「여성안전 해결책·방」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에 시민의 관심과 전문가의 전문적 견해를 더하여 모든 여성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서울시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논의함

- 참 석 : 시민(19명), 전문가(13명), 공무원 등(11명) 총 43명
 - 시민참가자는 「서울해결책·방」의 공식 페이지에서 사전 참가신청을 받아 모집
 - 전문가 참가자는 여성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재단에서 초청
 - 공무원 참가자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관련 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 내 용
 -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2.0 주요내용 발표 및 현 정책의 실태 공유
 - 해결책 제안을 위한 테이블 토론, 시민-전문가-공무원 함께 해결책 작성 및 전체 공유

○ 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사회 : 이창림(민주주의기술학교 대표)
- 본 행사 사회 : 박운정(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대표), 김재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 간	구 분	내 용
10:00~10:30	참가자 등록	- 참가자 도착 및 접수
10:30~11:00	오리엔테이션	- 행사 전체 일정 소개 및 참가자 인사
11:00~11:05	인사	- 인사말씀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11:05~11:40	주제별 발표	1)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2.0 (김창현 서울시 여성정책기획팀장) 2) ‘여성 위험 사회’, 모두가 당사자입니다(김고연주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연구위원)
11:40~12:30	회고 및 주제선정	- 회고 : 발표에 대한 간단한 회고(참가자 전원) - 토론주제(질문) 제기 및 선택, 주제별 해결책방 구성
12:30~13:30	중식	- 도시락 나누기
13:30~17:10	해결책방	- 1차 논의 : 전체적인 원인, 문제점 중심 - 책방마실 : 다른 테이블 순회, 의견추가 및 새로운 관점 전달 - 2차 논의 : 대안으로 나온 해결책 중심, 실행에 중점 - 해결책 집필
17:10~17:30	휴식	휴식 및 정리
17:30~18:00	발표 및 공유	- 팀별 해결책 발표 및 총평 (박원순 서울시장) - 기념촬영 및 폐회



대표이사 인사말씀



김창현 팀장 주제발표



김고연주 연구위원 주제발표

○ 주제별 발표 중 전문가 발표 주요내용

· ‘여성 위험 사회’,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 강남역 사건은 ‘위험사회’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일상적이고 젠더화되어 있는지 보여줌. 여성에게 가해지는 위험은 역사적이고 전지구적인 현상으로 ‘여성 위험 사회’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임
- 서울시 여성안심정책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몰래카메라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는 점, 친밀한 남성들이 가해하는 폭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이고 적절함
- 서울시 여성안심정책 전반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입 필요
- 여성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돌본다는 것의 구체적인 상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모델링을 계발하고 정책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 필요
- 몰래카메라를 찍으면 안 된다는 당위를 알면서도 몰래카메라를 찍는 가해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성인지적 성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반복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성인지적 성교육의 기반이 되는 젠더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여성안심정책이 촘촘하게 시행될수록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반응에 대한 대응방안 고민 필요. 여성의 안전과 행복이 우리 사회 성원 전체의 안전과 행복으로 직결되는 명확한 선례를 만들고 발굴하며,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의 국면을 이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성들의 발화를 정리화-공식화할 필요



회고



해결책방 구성



1차 논의



책방마실 : 순회



2차논의



해결책 집필



해결책 발표



해결책 전달



참가자 기념촬영

○ 팀별 해결책 주요 내용

해결책 I 권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 여성이 폭력에 주로 노출되는 이유는 권력 관계의 문제이므로 여성들의 커뮤니티, 여성의 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커뮤니티 및 지역공동체 성장 필요 ○ 기존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방안 - 지원사업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벽(예산서 작성, 자격요건 등) 제거 - 3년~5년 이상 중기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 및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확대 - 여성주의적 관점이 부족한 마을 사업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젠더의식 제고 교육 추진 - 성평등을 주제로 여러 단체에서 연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지원 ○ 신규 성평등 커뮤니티의 성장 및 유지 방안 - 신생 커뮤니티 생존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 제안서 작성, 홍보 부족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장벽 낮추기 /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FGI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 반영 ○ 성평등 정책의 지역화 : 지역적 특성을 적극 반영한 지역 성평등 정책 수립 ○ 성평등한 마을 커뮤니티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 성소수자, 장애인, 연령 등 소수자성을 포함한 여성문제 /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젠더 교육의 결합 필요	

해결책 II 권	중간리더 젠더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모니터링 정책
○ 최근 성교육 및 여성폭력예방교육 양적으로 급증하나, 질적 발전 이루어지지 않는 추세 - 공무원, 경찰, 교사 등 중간리더의 젠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필요 -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강의평가도 진행하고 있으나, 젠더의식의 변화 여부를 알 수 있는 평가가 아니며, 다소 형식적인 차원에서 추진 ○ 이 해결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 젠더의식의 실질적 변화 / 중간리더의 젠더의식, 업무활동능력 강화 / 시장화된 젠더교육 지양,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 구축 기반 마련 ○ 해결책의 구체적인 내용 - 대상자 젠더 인식 조사 : 교육 담당자와 책임자 조사, 교육 전·후 젠더의식 변화 모니터링 - 대상자들이 받아 온 교육 콘텐츠 조사 및 모니터링 : 교육 콘텐츠의 젠더 적합성 여부 판단 및 교육이 쌍방향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조사 - 대상자들이 받은 교육 콘텐츠의 효과성 조사 : 젠더의식 교육의 업무 적용 가능성 조사가 필요하며, 문제점에 기반하여 더 나은 젠더 교육 콘텐츠 개발 ○ 해결책의 기대효과 :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중간리더 스스로의 젠더의식 개선 및 제대로 된 교육 실행, 성인지적 정책 집행 가능성 향상, 서울시민들의 젠더 의식 향상, 파급효과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 성인지적 정책 입안 가능성 제고	

해결책 III권

여성안전 새판짜기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개발 및 인증사업 : 시민(대중과 청소년)에게 젠더감수성 불어 넣기

- 여성혐오범죄 증가 사유 : 사회 전반적으로 젠더 감수성 부재, 젠더 인식수준 낮음, 젠더교육 부재 ⇒ 새로운 교육과 안전 인증과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임산부 배려석’을 ‘미래 세대를 위한 자리’로 규정하는 통념 개선 필요
 - 젠더 교육은 어린 시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있음
- 해결책의 구체적인 내용
 - 서울시 산하 성평등실 개설 ⇒ 청소년교육과 대중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젠더안전지표 개발
 - ① 대중교육용 젠더안전지표 : 일례로 임산부 배려석과 같은 캠페인이나 홍보물이 적절한지 젠더안전지표를 적용하여 판단 → 정책제언 → 개선안 실행
 - ※ 젠더 감수성 뛰어난 기업광고에 인센티브 부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도모
 - ② 청소년교육용 젠더안전지표 : 젠더안전지표를 적용하여 젠더안전인증을 거친 서울시 표준 성평등 교육안개발 → 교육청에 제안 → 서울시 내 전반적인 젠더안전감수성 제고
 - ※ 청소년 강사단 도입 :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강사가 되어 직접 교육 프로그램 실행
- 해결책의 기대효과 : 서울시 젠더 안전 인증을 거친 대중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통해 ① 젠더 인식 개선을 통해 성별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시민을 양성, ② 서울시 생활안전 행정효과와 효율성 향상,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여 및 참여 확대
- 해결책 적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
 - 젠더전문가 추가 영입을 통해 현재 1인인 ‘젠더전문관’ 보완 필요
 - 젠더안전지표 개발부터 인증·시행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 여성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지역 커뮤니티 인증(여성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 간 연대의 장 마련, 커뮤니티 형성 등 필요)

해결책 IV권

사이버 여성폭력 대응방안

-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2.0에는 사이버 상 여성혐오, 폭력범죄에 대응하는 방안 부재
- 사이버 상 여성폭력범죄 유형 : 사이버 성매매 알선 플랫폼 제공, 음란물 제공·공유, 성매매 업소 정보 제공, 사이버 성희롱, 음란물 판매, 사이버 스토킹, 신상털이 및 이에 근거한 협박
 - 사이버 세상에 노출되는 성매매 등 여성을 거래하는 정보의 유통은 여성을 대상화하고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확대, 이는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인식 근거가 됨 ⇒ 사이버 상 유통 정보에 대한 상시적 감시 시스템이 매우 중요
- 해결책의 구체적인 내용
 - 사이버 상 여성폭력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조치방안 마련
 - ① 현재 민간단체 활동의 공공성 확보 및 서울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제안
 - ② 용역사업 결과를 토대로
 - 법적 근거 마련
 - 경찰력의 현실 대응 능력 강화
 - 개발자·운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서울시의 사이버 여성 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민관협력을 통한 대응방안 강화
 - 사이버 폭력에 이용된 증거물 폐기 의무화 : 적극적 개입과 제도화 지원

해결책 V권

인식개선을 통한 폭력예방정책

- 폭력예방과 관련하여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언어의 교체
 - 서울시 모든 공공자료(광고물, 픽토그램 등)에 사용된 모든 단어 성인지적 개선
 - 언어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 임신부배려석의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입니다’ 라는 캠페인 문구 교체 필요
 - 여성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장의 그림이나 문구도 ‘배려주차장’ 으로 교체 필요
- 공동체를 활용하여 여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폭력 발생 후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사후 대책에 불과
 - 통·반장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제안 : 집합교육 아닌 최소 인원 대상 소통하는 교육
 - 성비 및 연령비를 고려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성인지적 사고 담보 필요
- 대다수의 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바, 파트너십에 대한 교육 필요
 - 데이트 폭력의 경우 사랑의 방식으로 착각하여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리적 폭력만을 폭력으로 인식하여 심리적·정신적·사회적 위축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많음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질적인 연구 필요
 -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 필요
 - 정상가족·한부모가족·동성애가족·비혼가족 등 모든 가족을 인식하는 교육 필요
 -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책자 배포 :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하는 책자를 넘어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내용 추가
-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에 대한 기억의 저장소 조성

해결책 VI권

대상별 여성안전맞춤정책 3.0을 제안합니다

- 여성안심특별시 2.0의 한계 : 정책 철학 부재, 정책 대상이 비장애인인, 20~30대인, 이성애자 여성으로 제한적
- 서울시 여성안전맞춤 3.0 패러다임 제안 : 정책의 범주에 보다 많은 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상성을 탈피하고 서울시 안전정책의 가치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성평등을 실현하는 특별시입니다” 라는 모토를 제안함
- 정책 실행방안
 - 실행조직 측면 : 젠더전문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고 인원을 늘려 부서 간 협업 도모 지원, 정책 입안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단계에 시민들의 참여 보장
 - 실행 프로그램의 방향 전환
 - 스마트폰 앱과 관련하여 경찰 등 공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체계 필요(예 :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등산하는 우렁이 셰르파)
 - 젠더안전지표를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적용시켜 평가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후 다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
 - 강남역 사건자료 아카이브 : 포스트잇 및 SNS상의 댓글 등 모든 자료 빅데이터화해서 아카이빙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연구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연구사업 예산 편성
 - 안전정책 홍보 패러다임의 전환 : 성인지지표를 제정해서 서울시에서 내보내는 홍보물에 모두 적용, 관리하고 모니터링 후 제재하는 방식 필요 /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성희롱이나 몰카 금지에 대한 감성적인 홍보 필요

□ 세부과제 추진내용 ③ : 2016 여성정책박람회

○ 일 시 : 2016년 10월 7일(금), 10:00~18:00

○ 장 소 : 서울광장 및 시민청 지하 2층 이벤트홀

구분	내용	장소
시민 거리투표 (10:00~18:00)	-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10선 인지도 및 선호도 투표 - 여성안전 해결책방 시민 아이디어 필요도 및 선호도 투표	서울광장
안전공감Talk (15:00~17:30)	- 대상별 안전이슈 모둠 토론 및 정책요구안 도출 - 정책요구안 작성 및 발표, 공유	시민청 이벤트홀

○ 주 제 :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시민에게 길을 묻다

○ 참 석 : 서울시민 및 전문가 등 총 200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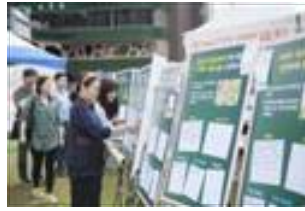
- 시민 거리투표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참여 시민 150여 명

- 안전공감Talk : 대상별 토론자(현장 전문가) 관심 시민 42명 및 재단 직원 등

○ 프로그램

- 전체사회 : 김창연 공동체팀장

구분	시간	내용	비고
거리투표	10:00~18:00	○ 시민 거리투표 및 캠페인	-
안전공감 TALK	15:00~15:05	○ 안전공감Talk 개최 : 환영사 및 행사 소개	강경희 대표이사
	15:05~15:10	○ 참가자 인사 나누기	모듬별 인사
	15:10~15:30	○ 토론 주제 선정	모듬별 논의
	15:30~16:00	○ 정책 요구안 선정을 위한 1차 논의	
	16:00~16:30	○ 정책 요구안 정리를 위한 2차 논의	
	16:30~16:50	○ 정책 요구안 정리	모듬별 1인
	16:50~17:20	○ 테이블별 정책 요구안 발표 및 공유	
	17:20~17:30	○ 총평 ○ 기념사진촬영 및 폐회	강경희 대표이사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 거리투표 및 캠페인



대표이사 인사말씀



모듬별 토론주제 선정



정책요구안 논의, 정리



모듬별 토론내용 발표



대표이사 총평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총평

○ 시민거리투표 결과

-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10선 시민거리투표 결과

제목	인지도 결과	선호도 결과
안심키가스카우트 운영	알고 있어요 95.59% 몰랐어요 4.41%	더 확대해요 71.19% 홍보해 주세요 25.42% 바꿔봐요 3.39%

제목	인지도 결과	선호도 결과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알고 있어요 82.09% 몰랐어요 17.91%	더 확대해요 70.59% 홍보해 주세요 25.49% 바꿔봐요 3.92%
여성안심보안관의 몰래카메라 점검	알고 있어요 42.86% 몰랐어요 57.14%	더 확대해요 73.44% 홍보해 주세요 26.56% 바꿔봐요 0.00%
데이트폭력 전용 상담콜 운영	알고 있어요 40.63% 몰랐어요 59.37%	더 확대해요 41.38% 홍보해 주세요 53.45% 바꿔봐요 5.17%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알고 있어요 66.67% 몰랐어요 33.33%	더 확대해요 53.45% 홍보해 주세요 43.10% 바꿔봐요 3.45%
여성폭력예방 여성안심 행복마을 조성	알고 있어요 29.41% 몰랐어요 70.59%	더 확대해요 46.00% 홍보해 주세요 54.00% 바꿔봐요 0.00%
지하철보안관의 성범죄 단속	알고 있어요 63.83% 몰랐어요 36.17%	더 확대해요 58.46% 홍보해 주세요 40.00% 바꿔봐요 1.54%
인터넷 유해환경 시민감시단 운영	알고 있어요 40.91% 몰랐어요 59.09%	더 확대해요 66.67% 홍보해 주세요 25.93% 바꿔봐요 7.41%

제목	인지도 결과	선호도 결과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메뉴얼 개발	알고 있어요 19.67% 몰랐어요 80.33%	더 확대해요 57.14% 홍보해 주세요 34.69% 바꿔봐요 8.16%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	알고 있어요 60.47% 몰랐어요 39.53%	더 확대해요 35.59% 홍보해 주세요 64.41% 바꿔봐요 0.00%

- 여성안전 해결책·방 시민 아이디어 10선 시민투표 결과

제목	필요도 결과	선호도 결과
몰카 금지 홍보물 배포 및 시민공모전	좋아요 96.92% 필요치 않아요 3.08%	빨리 실행해요 86.11% 고민이 필요해요 11.11% 바꿔봐요 2.78%
지역공동체 성장 지원 마을 기반 성평등정책 수립	좋아요 98.04% 필요치 않아요 1.96%	빨리 실행해요 89.74% 고민이 필요해요 10.26% 바꿔봐요 0.00%
모바일 시민감시단의 여성폭력 콘텐츠 감시, 고발	좋아요 97.83% 필요치 않아요 2.17%	빨리 실행해요 90.48% 고민이 필요해요 7.14% 바꿔봐요 2.38%
경찰, 공무원, 교사 대상 젠더교육 모니터링	좋아요 97.83% 필요치 않아요 2.17%	빨리 실행해요 87.50% 고민이 필요해요 7.81% 바꿔봐요 4.69%

제목	필요도 결과	선호도 결과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기억의 저장소 조성	좋아요 93.55% 필요치 않아요 6.45%	빨리 실행해요 69.23% 고민이 필요해요 30.77% 바꿔봐요 0.00%
서울시민이 뽑는 성평등광고상 제정	좋아요 95.56% 필요치 않아요 4.44%	빨리 실행해요 85.37% 고민이 필요해요 12.20% 바꿔봐요 2.44%
통장, 반장 대상 교육으로 여성폭력범죄 사전 예방	좋아요 97.73% 필요치 않아요 2.27%	빨리 실행해요 82.50% 고민이 필요해요 12.50% 바꿔봐요 5.00%
서울시 제작 광고 등 성인지적 모니터링	좋아요 97.56% 필요치 않아요 2.44%	빨리 실행해요 86.11% 고민이 필요해요 2.78% 바꿔봐요 11.11%
안전한 등산을 위한 “우렁이세르파” 앱 개발	좋아요 96.43% 필요치 않아요 3.57%	빨리 실행해요 64.00% 고민이 필요해요 32.00% 바꿔봐요 4.00%
10대에 의한, 10대를 위한 ‘성평등 10대 강사단’ 운영	좋아요 98.08% 필요치 않아요 1.92%	빨리 실행해요 68.89% 고민이 필요해요 31.11% 바꿔봐요 0.00%

○ 모듬별 안전공감책 주요 내용

장년여성 모듬

“대중교통에서의 안전을 위한 안내물” 등

- 대중교통수단 중 지하철 안내 강화를 통한 장년·노년 여성의 생활 속 안전 확보
 - 이모티콘 및 손글씨를 활용하여 식별과 이해가 쉬운 형태의 안내표지판 부착
 - 안내표지판 디자이너 및 설치 요원 일자리 확보 효과도 창출 가능
- 남성 위주의 정책 토론 시스템이 많은데 여성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여 정책 방향 마련 필요
- 도로변 CCTV와 함께 비상벨을 마련하여 위험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골목길의 경우 도로 위해 형광색 도료를 활용할 경우 가로등이 없는 경우에도 불편이 없을 것임
- 가정폭력 발생 시 위기전화 및 쉼터에 대한 홍보 강화
- 여성가족부 실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지자체별로 실시되면서 이원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할 필요
- 장년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장년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확충 필요
 - 장년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 분야 중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결 필요

부모 모듬

우리 아이들의 몸 & 마음의 안전터,
그리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터 : 心+身+터

- 재난 시 아동 안전 증진 방안
 - 학교 수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대피 교육 실시 필요 (예 : 일본)
 - 유치원은 재난 관련 교육 의무화,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으므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 필요
 - 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재난방식을 비치
- 아동 성폭력 관련 안전 증진 방안
 - 부모와 함께 하는 성교육(즐거운 성에 대한 양질의 교육) 필요
 - 영상, 역할놀이 등 실제 사례를 활용한 상황 대처 및 대응 교육 필요
- 자연놀이터 조성 필요 : 모래, 흙 등 자연물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필요

-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
 - 배달음식점 배달원에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화번호가 공개, 이를 통해 사적인 연락을 받아 공포감을 느낌
 - 자신의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상태에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
 -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게재한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받는 경우
- 해결방안
 - 배달업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전화번호 및 시스템 구축
 - 주문한 소비자에게 배달원 관련 정보 공개, 전화를 통한 카드결제 보편화
 - 배달원 및 경찰 대상 젠더 폭력에 대한 교육 확대

-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 :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임금이 너무 낮음, 다문화 교육 확대 필요
- 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일자리의 지속성 담보 및 임금 개선 필요
 - 다문화강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며, 연속 채용이 불가능해 교육의 질적 향상이 어렵고, 안정적 일자리 아님
 - 경력 있는 다문화강사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다문화강의 확대 및 내용 개선 필요
- 한국 체류 기간 무관한 다문화센터 이용 보장 필요
 - 다문화센터는 한국 입국 5년 이하의 이주민들만 이용 가능
 - 영어를 사용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길어도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다는 문제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이주여성 채용 확대 필요
 - 이주여성의 어려움은 이주여성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음
 - 다문화센터의 팀장 이상급은 다문화여성으로 채용 필요하며, 구청, 보건소 등도 이주여성 채용 확대 필요
 - 6개월 단기직, 최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 필요
- 방과후 교실 및 돌봄교실 등 확대 필요
 -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어려움 경험
 - 엄마가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후 교실 등의 도움을 많이 받으므로 확대 요망
- 이주여성들의 다문화센터 공간 이용 확대 필요
 - 현재 다문화센터는 18:00까지 운영
 - 이주여성들이 필요할 때 다문화센터의 빈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
 - 직장을 다니는 다문화여성들이 퇴근 후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줄 필요 있음

- 소라넷은 디지털 성범죄의 끝이 아니라 시작
 - 디지털 성범죄는 1990년대 PC 보급 이전 캠코더 보급 때부터 시작, 기술 발전과 함께 만연해져 현재는 문화화
 - 동시에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여성의 셀카 사진도 음란물 사이트에 노출될 정도임
- 법제도 마련 시급하나, 지자체에서 단위에서는 사회전반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접근 필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익광고 등을 통한 공론화 필요
 -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지하철역 등지에 공익광고 게재 필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성교육 확대 필요
 -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게시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력하는 영상 등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보통 초등학교 2학년, 심하게는 유치원생 때부터 이러한 게시물을 접하게 됨
 - 아이들 및 시민들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왜 범죄인지 상세히 알려주는 교육 필요
- 조례제정과 과태료 부과 필요 : 몰카를 찍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규제의 효과 강화 필요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인 설립 및 연구 지원 필요 : 통계 및 연구가 전무한 현실
- 피해자 보호시스템과 법률지원 필요 : 피해자 대응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물 추가 유포 근절

3)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

□ 추진성과 ① : 목표대비 달성도

구분	목표	실적	달성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 성평등 기념행사 기획 및 운영	3회	3회	100%
여성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참여 건수	9개소	12개소	133%

□ 추진성과 ② :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관련 콘텐츠 발굴

- 시민의 안전 실천 사례 및 시민 정책제안서, 자체 콘텐츠 등 총 20건 발굴

No	컨텐츠 유형	제목(내용)	비고
1	시민 발제문	나는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입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2	시민 발제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보호 대책	
3	시민 발제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4	시민 발제문	주민이 만드는 안전한 마을	
5	시민 발제문	동국대학교 학내 성희롱, 성폭력(인권침해) 예방활동 소개	기념
6	시민 발제문	나는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는 여성’입니다	토론회 및 전시
7	전시 콘텐츠	인포그래픽 : 여성안심특별시,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8	전시 콘텐츠	해외사례 :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손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세계의 여성들	
9	정책 제안서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여성주간 기념
10	정책 제안서	중간리더 젠더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모니터링 정책	
11	정책 제안서	여성안전 새판짜기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개발 및 인증사업: 시민(대중과 청소년)에게 젠더감수성 불어 넣기	
12	정책 제안서	사이버 여성폭력 대응방안	
13	정책 제안서	인식개선을 통한 폭력예방정책	여성안전 해결책·방
14	정책 제안서	대상별 여성안전전맞춤정책 3.0을 제안합니다	
15	정책 제안서	대중교통에서의 안전을 위한 안내물 제안	
16	정책 제안서	우리 아이들의 몸 & 마음의 안전터, 그리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터 : 心+身+터	2016 여성정책 박람회
17	정책 제안서	여성 대상 범죄에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18	정책 제안서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 - 일자리 창출과 교육 강화	안전공감 Talk 및 시민 거리투표
19	정책 제안서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20	시민투표 결과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및 여성안전 해결책·방 시민아이디어 등 20개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견	

- 「여성안전 해결책·방」에서 도출된 시민 정책제안서는 서울시 부서검토 완료
- 정책제안서(해결책) 6건 → 박원순 시장 전달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검토의견서 수령(공동체팀-1421, 16.09.09) → 해결책·방 참가자 전원에게 공유 완료

□ 추진성과 ③ : 온라인 토론방 개설 및 운영

○ 여성안전 해결책·방 행사 후 참가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개설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1차 개설 : 7월 5일 개설, 총 32명 참여
- 보다 안전한 토론방 운영을 위해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으로 2차 개설
: 7월 29일 개설, 총 27명 참여 중, 참여자 수는 계속 확대 예정
- 참가자 간, 참가자와 재단 간 네트워킹을 위한 관련 자료 및 정보 지속 공유

□ 홍보실적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 홍보물 제작 및 작성, 발송(※ 기획행정팀 협조)



웹초청장 발송(2월~3월)



재단뉴스레터 : 젠더뉴스(3월 4일)



보도자료(3월 7일)

- 보도내역

구분	보도일	내용
베이비뉴스	2015.3.8	“I-SAVE·SEOUL, 우리가 안전이다”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603081804422050003517&categorycode=0030#z
여성신문	2015.3.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우리가 안전이다’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안전 토론회, 안전 전시 등 http://www.womennews.co.kr/news/91965#.Vukio89JmUk
일요신문	2015.3.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우리가 안전이다’ 토론회 등 개최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68742

○ 여성주간 기념 「여성안전 해결책·방」

- 홍보물 제작 및 서울시 홈페이지 등 게시(※ 서울특별시 협조)



홍보물 이미지

- 해결책방 소개 및 참가자 신청 페이지, 정보공유 게시판 개설, 운영

구분	주소
소개 및 신청 페이지	http://seoulideaexpo.org/2016/solution
정보공유 게시판	http://seoulideaexpo.org/2016/solution_info

- 보도내역

매체명	보도일	제 목
환경일보	2016.06.30	서울시, 브레인스토밍 ‘해결책방’ 추진
NEWS1	2016.06.29	‘서울 해결책방’ 서 미세먼지·여성안전문제 토론
METRO	2016.06.29	‘시민·전문가·공무원’ 한 팀으로 문제해결 논의, ‘서울해결책방’
연합뉴스	2016.06.29	미세먼지 등 서울 도시문제 ‘집단지성’으로 푼다
NEWSIS	2016.07.03	‘서울해결책방’ 박원순 서울시장
KBS NEWS	2016.07.03	서울시, 오늘 도시 문제 해결 토론회
TBS 교통방송	2016.07.04	2016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7. 사업평가

□ 전문가 평가 : 과제 최종심의 결과

- 심의기간 : 2016년 11월 중순~12월 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구분	심의의견
심사의원①	○ 성평등 기념사업의 주제로 <여성 안전>을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함 -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 여성 스스로 안전에 대한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폭력을 예방하는 실천에 대한 문제로 토론회를 만든 것이 참신함 - 여성안전 해결책방 : 여성시민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게시판을 운영한 것은 좋은 방법임. 여성안전 관련 정책을 지속 홍보하고 알리는데 활용하기 바람 ○ <여성안전 해결책·방>은 제목부터 여성들의 관심을 이끄는 참신함을 보여줌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굴되었는지 궁금한데, 이러한 내용들이 여성시민에게 공유되면 프로그램의 추진 목적을 더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여기서 제안된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효과성을 발휘하도록 할 것인지, 특별히 관계 부처에 어떻게 환류될 것인지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짐 ○ 성평등 기념사업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나 후속작업을 지속하기 바람
심사의원②	○ 각각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소통을 이루고자 함은 적절한 기획임 - 다만 각각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과제로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함 ○ 목표설정 : 계량지표 이외에 질적 성과 측정 지표가 보완될 필요 있음 ○ 주제선정 : 주제 선정 자체에 시민참여과정을 설계할 필요 있음 ○ 시민참여의 수준 : 아직까지 내용적으로는 토론회 패널에 전문가 등이 아닌 시민발제자를 선정하거나 세팅된 프로그램을 열린 공간에서 진행하면서 시민참여를 조직하는 방식에 가까움.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동원된 ‘청중’에서는 벗어난 것이지만, ‘주체(agency)’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탈권위적이고 수평적인 평등의 장은 공간 뿐 아니라

구분	심의의견
	기획과 실행, 역할분담과 결정권한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매체의 영향력이나 보도건수 등에서 볼 때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홍보채널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함 ○ 사업담당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과 만나는 방법론을 익힐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심사의원③	○ 사업기획 적정성 - 시의적절하며 재단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였음 -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 다양한 시민 발제와 함께 하여 고무적이며 피해자 되지 않기에서 가해자·방관자 되지 않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함 ○ 사업주체의 시의적절성 -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시민에게 길을 묻다 : 자문회의 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적극 수렴됨 - 여성안전 해결책·방 : 기존 정책이 여성을 안전약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책생산자로 참여하게 한 점에서 사업주체 시의적절하며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 충분히 반영됨 ○ 사업수행과정의 체계성 - 절차상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따라 단위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짐 ○ 사업추진성과 - 여성안전 해결책·방 : 적극적 환류의 수범사례임. 사업 시행 현장에 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하여 담당부서에서 현실타당성을 고려, 정책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여 긍정적인 민관협력 시스템으로 판단됨

□ 참여자 평가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행사 참여자 만족도 평가

- 객관식 의견

구분	항목	점수(5점 만점)
행사 전반	행사 시간	4.33
	행사 내용	4.29
	행사 환경 및 서비스	4.33
프로그램	기념 전시	4.27
	기념 토론회	4.29
본 행사가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정도		4.50

- 주관식 의견

긍정적 의견	개선 및 제안사항
- 모두가 함께 하는 토론의 장이라는 점이 인상적 - 안전과 관련된 영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았음 - 다양한 사례, 다양한 발표 구성이 좋았음 - 발표의 제목과 주제가 돋보임 - 발표내용 재미있고 자유롭게 발표하는 모습 보기 좋았음 - 일반적인 토론회와 다른 참여자 위주의 좌석 배열이 좋았음 - 안전을 위해 실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 발표시간이 짧아 더 많은 내용을 듣지 못해 아쉬웠음 - 캠페인 및 행사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았을 듯함 - 자유발언 시간이 짧아 아쉬웠음

□ 담당자 평가 및 의견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행사 담당자 평가

- 행사 만족도 설문 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행사 시간 만족도 4.33점, 행사 내용 만족도 4.29점, 행사 환경 및 서비스 4.33점으로 세 항목 모두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났음
- 행사 내용 만족도와 관련하여 토론자의 발표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는 의견과 청중의 자유 발언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는 의견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 토론회와 전시 만족도는 각각 4.29점, 4.27점이었고 기념행사가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문항은 4.50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음. 시민이 주체가 되는 토론 구성 및 시민참여 퍼포먼스로 인해 실효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임
- 본 기념행사를 통해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를 알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음. 또한 서울시 정책 공유와 자유토론을 통해 민관협치를 도모하였다는 점과 기존 여성안전정책

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슈 토론으로 여성 안전정책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여성주간 기념「여성안전 해결책·방」은 “해결책방”이라는 정책회의 모델을 처음 시도해 본 자리로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압축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발견되었으나, 시민의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전문성, 공무원의 현실적 고려가 융합될 수 있는 틀이므로 향후에도 ‘정책’을 넘어서는 거버넌스회의 모델로 적극 활용 필요

8. 향후 개선계획

□ 시민의 정책개선 의견에 대한 환류 필요

- 정책 및 거버넌스 등 민관 협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환류(feedback)가 필요함
 - 여성주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여성안전 해결책·방」의 경우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보는 정책회의로 이 자리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서는 서울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참여자들에게 보고하였음
 - 향후 진행되는 성평등 기념사업 등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사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시민들에게 환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시민 참여 방식 다양화 필요

- 시민들이 청중이 아닌 보다 주체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념행사를 운영하되, 시민의 참여 방식을 캠페인, 관련 퍼포먼스 등 다양하게 기획함으로써

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고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공유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 있음

- 또한 시민이 직접 프로그램의 방향이나 세부 내용을 기획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II

성평등 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

1. 과제배경
2. 과제목적
3. 과제목표
4. 전년 대비 개선사항
5. 과제개요
6. 세부과제 진행과정 및 추진실적
7. 사업평가
8. 향후 개선계획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성평등 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

1. 과제배경

□ 추진배경

- 재단은 2009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도시 및 여성기관, 국제기구 등과 교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울시 여성정책을 국외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기존 아시아 네트워크 중심의 개별 사업을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 국제사업으로 체계화 시키고,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세계 도시와의 네트워크 확대, 재단의 자체 기획을 통한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시켜 왔음
- 2013년 이후 재단의 국제사업은 네트워크의 대상과 교류 내용을 전환함. 국제사업의 핵심정책을 「여성친화도시」에서 성주류화, 여성안전, 여성노동 등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으로 전환하고 신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외 여성기관, 도시와의 신규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책 사례 공유를 통해 서울시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음
- 2016년 성평등 의제 국제협력 사업은 글로벌 주요 이슈와 국내 여성 이슈의 연계성을 통해 국제 이슈의 국내 확산, 국내 여성 이슈의 국제 확산에 주력하고자 함. 이를 위해 2015년 UN 새천년 개발 목표(MDG) 이후 논의되고 있는 국제

적 주요 이슈인 Post-2015,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 논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새로운 도시 계획 수립(UN Habitat III)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의 젠더 통합의 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서울시의 다양한 우수 정책 사례를 통해 국제적으로 적극 공유하고자 함.

- 또한 국외 여성기관, 여성 단체뿐만 아니라 국외 도시와의 신규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국내외 여성정책의 상호 공유를 더욱 확대하고 및 이를 통해 서울시 여성 정책, 재단 연구,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 2015 「성평등의제 국내외확산 프로젝트」 사업 평가 의견 반영

- 국내외 주요 의제에 대한 심층적 상황 분석과 젠더적 관점의 전략 연구 등을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대내외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의제-정책-구체적 사업 활동 등으로 사업이 일정한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전문가 풀 활용을 통한 주요 젠더 의제에 논의 및 분석을 통한 대내외 확산 추진 국내외 주요 의제 선정 및 이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 계획 및 실행을 통해 사업 간 연계성 강화

○ 2015년 성평등 의제 국내외 확산 프로젝트 추진 결과

추진 사업	추진 내용
○ 토론회 개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 ‘여성, 마을에 젠더를 그리다’ · 여성 공동체 활동 소개 부스 운영, 체험, 공연 등  - Natural Disaster and Women 개최 · 자연 재해에 따른 여성의 피해, 젠더 관점에서의 해결 과제 토론 · 네팔 대지진 발생에 따른 네팔 여성 지원 방안 논의 
○ 국제회의 참가 및 발표	- UN CSW 참가 및 발표 · 서울시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및 NGO 역할 발표 - 메트로폴리스 연수원 공동 세미나 참가 및 발표 ·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사례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회의 참가 · 성평등과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 국외 여성기관 공동 협력	- Big Cities and Women 작성 ·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도시의 역할 및 실행 방안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UN Women, WICI 등 10여개 기관 및 단체 공동 작성 
○ 국외 여성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북유럽(스웨덴, 덴마크) 도시 기관 교류 협력 (스톡홀름대, 스톡홀름시, 스웨덴 지방성장청, 젠더옴부즈만, UNIONEN, KVINFO, 3F, 덴마크 노동청) - 일본 오카야마 현립대 교수 간담회 - 일본 오사카 현립대 연구원 간담회 - UN Women 컨설턴트 여성 안전 간담회 - UN HABITAT 안전도시가이드라인 작성 논의 회의  
○ 온라인 정책 소식지 발간	재단 연구 및 사업 국외 홍보(연 2회, 상하반기) 

2. 과제목적

□ 추진목적

- 국내외 여성정책 네트워크 신규 구축 및 확대
- 국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울시 여성정책의 국외 공유 확산
- 국제기구, 국외 도시, 여성 NGO,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성평등 의제 논의

3. 과제목표

□ 국외 네트워크 구축 및 성평등 의제 확산 : 6회

- 국외 도시, 여성 단체, 기관 대상 서울시 성평등 의제 공유
 - 국제회의 참여, 간담회 및 국제회의 개최 등
 - 온라인 정책 소식지 ‘Online Move’ 발간 (2회)
- 신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외 도시, 여성 기관, 여성 NGO, 국제기구 등
 - 국외 도시 및 기관 방문, 초청 간담회, 워크숍 등

4. 전년 대비 개선사항

□ 도시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강화

- 국제기구, 여성 NGO 뿐만 아니라 국외 도시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도시 단위의 여성 이슈 논의 및 해결 방안 논의

□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효과성 증대

- 국내외 도시, 여성 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진행 및 협력을 통한 사업 효과성 증대

5. 과제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 추진방법 및 내용

추진 사업 및 내용													
서울시 여성정책 사례 국외 공유	① 국제회의의 참가 및 발표												
	- 목적 : 국외 국제회의참가를 통한 글로벌 성평등 의제 논의 참여 및 서울시 여성정책 및 국내 여성 의제 국외 공유												
	- 참가 국제회의												
	<table><tr><th>회의명</th><th>일시</th><th>개최지</th></tr><tr><td>제 60차 UN CSW</td><td>2016.3.14.~24</td><td>미국 뉴욕 UN 본부</td></tr><tr><td>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워크숍</td><td>2016.7.4.~7.10</td><td>스페인 바르셀로나</td></tr><tr><td>UN Habitat III</td><td>2016.10.17.~20</td><td>에쿠아도르 키토</td></tr></table>	회의명	일시	개최지	제 60차 UN CSW	2016.3.14.~24	미국 뉴욕 UN 본부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워크숍	2016.7.4.~7.10	스페인 바르셀로나	UN Habitat III	2016.10.17.~20	에쿠아도르 키토
	회의명	일시	개최지										
	제 60차 UN CSW	2016.3.14.~24	미국 뉴욕 UN 본부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워크숍	2016.7.4.~7.10	스페인 바르셀로나											
UN Habitat III	2016.10.17.~20	에쿠아도르 키토											
② 온라인 정책 소식지 발간 ‘Online MoVE’													
목적 : 서울시 주요 여성 정책, 재단 연구 및 사업 국외 홍보 발간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대상 : 국제기구 관계자, 국외 도시 여성 정책 관계자, 전문가, 여성 활동가 등 616명 - 내용 : 재단 주요 연구 및 사업, 서울시 여성정책 등													
글로벌 성평등 의제 확산	③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개최일: 2016. 9월 1일												
	- 목 적: 아시아 지역 여성 안전 문제 논의 및 도시, NGO, 전문가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마련												
	- 대 상: 국외 도시 여성 정책 전문가, 국제기구 전문가, 여성 NGO 등 300여명												
	- 주 제 : Building an Inclusive and Safer Cities for women - 국외 초청 : · 국외 도시 여성 정책 전문가, NGO, 국제기구 전문가 - 회의 구성 : 기조연설, 주제 발표, 토론 및 부대 행사 등												
신규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④ 국외 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목적 · 국외 여성 단체, 기관과의 신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성평등 정책 공유 · 국외 여성 기관 및 단체 방문을 통한 우수 정책 사례 교류 및 벤치마킹												
	- 대상 : 국외 도시, 여성 기관, 단체 등												

○ 타 기관 교류실적 (총 15개 기관)

세부 사업	기관
제 60차 UN CSW 참가	UN Habitat, 후아료위원회, Methodist Women, Plan International, WICI Action aid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아테네 시청, 브뤼셀 시청
제 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 개최	텔리 Jagori, Citynet, 세베랑페라이시청, 효고현
UN Habitat III 세션 참여 및 세션 공동 개최	UN Habitat, 밴쿠버 WTC, 후아료위원회

6. 세부과제 진행과정 및 추진실적

1) 추진과정 및 추진내용

□ 과제 진행과정

○ 착수자문회의

- 일 시 : 2016. 2. 15(월) 14:00~16:00
- 장 소 : 컨퍼런스룸(5층)
- 참석자
 - 장영민, 시티넷 서울사무국 사업 부장
 -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황윤지,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 조영미, 여성정책실 실장
 - 김창연, 여성정책실 공동체팀 팀장
 - 문기현, 여성정책실 공동체팀 대리
 - 이주영, 여성정책실 공동체팀
- 주요 논의 안건
 - 2016년 국제 사업 전반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각 기관 사업 내용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
 - 국외 신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자문
- 주요 의견 및 제안
 - 국제기구 외에 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함. 서울의 정책 공유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국외 도시 특히 아시아 도시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통합해서 서울시가 리드하는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다면 좋을 듯함.
 - 글로벌 주요 관심이 지방 정부의 정책과 실행에 있고 모든 문제에 있어 이

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임. 이런 국제 흐름으로 볼 때 주제를 SDG의 지방 정부 이행 전략에 대한 주제로 잡은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임. 아태 지역 도시를 리드해서 여성 안전 도시를 주제로 세션을 구성하는 것도 좋을 듯함.

- 국제회의를 단독으로 개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시티넷에서 6월에 UN ESCAP, UNDP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의 세션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임. 또한 아시아 도시를 대상으로 서울의 정책을 소개하는 워크숍 등을 필요 도시에서 개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임

※ 시티넷,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 사업

	시티넷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제개발협력 센터)
주요 사업	○ 2016년 서울시와 CITYNET 주요 사업 - UN Habitat 안전 도시 프로젝트 (Global Network for Safer Cities) - UN ESCAP 온라인 플랫폼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와 재난 구호 프로그램 - 워크숍(아리수, 교통, 도시 재생과 e-거버넌스) - ‘International forum on urban policy sha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개최(6월) (UN ESCAP, UNDP 공동 개최) - PrecomIII(수라바야, 7월), HabitatIII(키토, 10월) - 시티넷 이사회(11월) ▶ 시티넷 멤버 도시(아태지역 132개)의 주요 주제에 대한 워크숍, 교육 등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였으나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 고민 중	○ ODA 사업 -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도시를 대상으로 지식 공유 방식의 ODA 사업을 진행 중 - 초청 연수, 현지 워크숍 및 정책 대화 개최 등의 방식으로 운영 중 ○ 국제 교류 협력 사업 - ODA 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외 MOU 체결, 국외 방문 및 네트워크 형성, 한아세안 협력 사업 (외교부 협력 사업)이 주요 사업임 ▶ 국제 사업이 주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대한 지적이 있으며 북유럽 도시 등과의 네트워크 확대 등 고민 중

○ 국외 주요 기관 2016년 주요 사업

기관명	주요 사업
Metropolis Women International Network	○ 성명서 ‘Big Cities and Women’ 배포 - 도시, 국제기구 등 배포를 통한 도시의 성평등 실현 촉구 ○ 5개 지역별(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여성 이슈발굴 및 지역 간 프로젝트 시행 ○ UN Habitat III 준비 및 참여
UN HABITAT (Gender Unit)	○ Global Network for Safer Cities 프로그램 진행 - 서울시(시티넷)-UN Habitat 간 안전 도시가이드라인 작성 프로젝트 진행 중 ○ UN Habitat III 개최(10월, 에쿠아도르 키토) - Sustainable New Urban Agenda 논의 및 채택
UN WOMEN	○ “Planet 50-50 by 2030: Step It Up for Gender Equality” - 2030년까지 성평등과 남녀동등 비율 50:50 이루기 위한 실천 전략 이행 ○ 제 60차 UN CSW 개최 - 2030년까지 50-50을 이루기 위해 SDG가 중요한 이행 전략임을 인식, 여성 역량강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이행 ○ 성평등 실현, 여성 건강(Zika Virus), 이민여성 역량강화와 성평등, 여성 경제력 강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에 대한 프로젝트 및 멤버국가, 기관, 단체들과 협력 예정
Huairou Commission	○ 제 60차 UN CSW 세션 개최 ○ World Bank 컨퍼런스 ○ UN Habitat III 참여 - 지역 회의, 준비 회의 등 개최 - Habitat III 세션 및 Academy 개최

⇒ 2016년 성평등 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 사업 추진 방향

- 서울시의 구체적 정책 실행 사례를 중심으로 국외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하되, 아시아 도시의 정책 사례를 통합하여 아시아의 주요 이슈의 글로벌 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사업 추진 필요
- 기존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국외 도시와의 네트워크 확대로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아시아의 선도 도시로서 아시아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아시아 도시 이외에도 북유럽 등 우수 여성 정책 실행 도시와의 네트워크 및 협력에 대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함.

- 국내외 여성기관, 단체, 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진행의 방식을 통해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이를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사업 진행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함.

□ 세부과제 1 : 제 60차 UN CSW 참가 및 발표

○ 제 60차 UN CSW 개요

- 개최 일 : 2016년 3월 14일~24일
- 장 소 : 미국 뉴욕 UN 본부 외
- 주 제 : Women's empowerment and its link to sustainable development
- 참 가 자 : UN 멤버 국가, 중앙정부 관계자, 주지사, 의회 의원, 국제사회전문가, 민간부문, 시민단체 등 10,000명
- 주요 행사

공식 회의(Official Meeting)	각 국가 장관, 국제기구 대표 등 참가. CSW 주요 의제 공식 논의
부대 행사(Side Event)	주요 국제기구, 각 국가 도시 대표 등이 개최하는 세션으로 여성 관련 주요 주제별 논의
병행 행사(Parallel Event)	주로 여성 NGO 및 기관 등이 개최하는 세션으로 관련 주제 논의

○ 세션 참여

I. Safer Cities +20: Public Space and Gender 세션

- 일 시 : 2016년 3월 18일 13:15~14:30
- 장 소 : UN Conference Room 11 - Conference Building
- 주 최 : UN-Habitat with WICI and Plan International
- 발표자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내 용 : 범죄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정책 실행 사례 - 여성 안전을 중심으로

- 서울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음.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안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존의 사업을 업그레이드 하고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안심특별시 2.0 사업을 추진함.
- 안심특별시 2.0의 기본 방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심 네트워크망 구축, ‘보호의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로 여성 역할 전환, 폭력범죄 예방으로서의 안전에서 재난 재해로부터의 안전으로 확대임.
- 안심이(safety network for women), 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CPTED,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가출청소년 돌봄약국 사업을 소개함
- 서울은 안전특별시 사업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와 나누고, city-to-city 여성 안전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한 아시아지역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II. Women and Urbanization: Celebrating their contributions to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세션

- 일 시 : 2016년 3월 18일 10:30~12:00
- 장 소 : UN Church Center
- 주 최 : Huairou Commission, United Methodist Women
- 발표자 : 조영미 여성정책 실장
- 내 용 : Gender Responsible City Planing in Seoul

- 서울시, 재단, 커뮤니티 여성들이 도시안전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도시 안전정책 개선에 참여한 사례를 발표함.
- 동작구 지역에서 풀뿌리 여성 활동가, 지역도서관 운영자, 환경운동가, 어머니 자조그룹이 모여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safety audit을 시행함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홈방범서비스, 안전지킴이집, 안심택시 등의 서울시 안심정책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아래로부터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정책에 여성의 경험들을 반영하는 민-관의 협력과 거버넌스는 여성뿐 아니라 도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며,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의 기초가 됨

○ 네트워크 협력 미팅

- 일 시 : 2016년 3월 18일(금) 15:00~16:00
- 장 소 : United Nations Conference Building
- 참 가 자 : UN Habitat, 후아료 위원회, 서울시, 재단 관계자 외
- 논의내용
 - UN Habitat III에서 공동 세션 개최 합의
 - 서울에서 안전 관련 국제회의 개최 협력 합의

○ UN Habitat 안전도시 기획 회의

- 일 시 : 2016년 3월 17일(목) 09:00~12:00
- 장 소 : Ford Foundation
- 주 제 : Gender and Safer Cities
- 참 가 자 : WICI, Plan International, UN Habitat, 후아료 위원회, 서울시, 재단 관계자 외
- 논의내용
 - 각 도시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방법론, 주요전략, 교훈, 성공사례 발표
 - Safer Cities+20 목표에 젠더 관점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Habitat III, New Urban Agenda(NU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에 여성과 소녀가 안전한 도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모색
 - Urban Agenda Statements 작성



세션 발표



네트워크 미팅

□ 세부과제 2 : 온라인 무브 13호, 14 발간

- 발 간 명 : 온라인 영문 정책 소식지 ‘MOVE vol. 13-14’
- 주요목적 : 재단 연구 및 사업, 서울시 여성정책 국외 공유
- 발 간 월 : 2016. 6월, 12월
- 발간형태 : 온라인 배포(이메일)
- 발송 대상 : 국외 도시 여성정책 전문가, 학자, 여성NGO, 국제기구 관계자 619명 ※개인 및 기관 대표 메일 포함

분류	인원	
도시 여성 정책 담당자	344명	세계 도시 시장, 부시장, 여성정책 담당자 등
여성 기관 및 NGO	97명	여성 기관, 여성 NGO 등
국제기구 관계자	48명	UN, UN ESCAP, UN Habitat, 메트로폴리스 등
기업	37명	국외 도시 여성 관련 기업
학자 및 학생	51명	교수, 연구원 등
기타	42명	기자, 대사관, 사회복지사, 학생 등
총 인원		619명

○ 섹션 구성

섹션 구분	주요 내용	vol. 13 구성	vol. 14 구성
Gender Focus	재단 연구, 사업 등 상반기 주요 이슈 커버스토리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우리가 안전이다’	- 제 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 개최 아시아 여성, 여성 안전을 이야기하다
SFWF Report & Resources	재단 연구 보고서 (요약)	-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환비용에 관한 연구 -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인지 통계 구축 -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연구 - 서울시 일자리 핵심사업의 성별고용영향분석평가	- 청년여성 첫 일자리 실태조사 - 장애여성 학대예방 정책방안 연구 -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교사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여성노인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연구:

섹션 구분	주요 내용	vol. 13 구성	vol. 14 구성
		-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 서울시 여성의 사회적 경제 진입 및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여성 손작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장애여성 노동 환경 분석에 대한 연구 - 가족 내 다양한 돌봄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방안마련 연구	2030 청년여성 1인가구 생활 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불안정 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의료 지원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 여성 공예창업 활성화 지원기관 운영 방안 연구 - 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 분석
SFWF News	재단의 사업, 행사 등 상반기 주요 뉴스	- 아시아 여성, 여성 안전을 이야기하다 - 아동 폭력 예방 토론회 · 전시회 - 20160517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여성 분노하다	- UN Habitat III 컨퍼런스 참여 - 성평등을 향한 198일간의 기록과 기억 - 서울시 일가족양립 미니 박람회 개최 - 시민이 만드는 성평등 서울 이야기
Seoul Women Policy	서울시 여성정책	-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2.0	- 청년 여성이 만드는 성평등 영화 'Seoul Women's Walk'

□ 세부과제 3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 행사명 : Workshop of Metropolis Women International Network
- 기 간 : 2016. 7. 4(월) ~10(일)
- 장 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Colon 호텔
- 주 제 : Mobility and Sustainability
- 대 상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지역 사무국(18개 도시) 및 바르셀로나 지방정부 관계자
- 세부 내용

구분	내용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전략 회의	- 일 시 : 2016년 7월 5일 15:00-18:30 - 장 소 : 바르셀로나 Colon 호텔 - 참가자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안테나(아비장, 아테네, 브뤼셀, 바르셀로나, 부에노스) - 논의 결과 · 목표 1. 메트로폴리스 조직, 활동 등에 젠더 관점 반영 · 목표 2. 안테나 간 사례 공유 및 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지식 생산 · 목표 3.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를 젠더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적 리더로 포지셔닝 - 제안 사항 · 메트로폴리스 조직, 활동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참가 시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 및 메트로폴리스의 활동에 젠더 관점을 포함 · 안테나 간 사례 공유를 위해 SNS 활용 등을 통한 간편한 공유 방법 활용 · 메트로폴리스에서 발표되는 모든 내용에 짧더라도 젠더 관점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메트로폴리스 조직의 성주류화를 위해 멤버들을 위한 젠더 트레이닝 실시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워크숍	- 일 시 : 2016년 7월 6일 09:15-18:00 - 장 소 : 바르셀로나 Colon 호텔 - 주 제 : “Mobility and sustainability in terms of gender perspective in metropolitan areas”

구분	내용								
	- 참가자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안테나 도시, UCLG 여성위원회, 바르셀로나 시의회, Gava 시의회, Molins de Rei 시의회, Sant Andreu de la Barca 시의회, Sant Boi de Llobregat 시의회 등 - 세부내용 <table border="1" data-bbox="371 446 1166 1676"> <thead> <tr> <th data-bbox="371 446 539 488">발표자</th><th data-bbox="539 446 1166 488">내용</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1 488 539 855"> 강경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td><td data-bbox="539 488 1166 855"> -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는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례임. 기존의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 서비스는 젠더 분석 없이 남성을 중심으로 지원 되었으나 젠더 분석을 통해 남성, 여성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이를 위해, 성별 영향분석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 이를 위해 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 여성과 아동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한부모 가족을 위한 매뉴얼 등 다양한 활동이 소개 됨. </td></tr> <tr> <td data-bbox="371 855 539 1222"> Mariel Iglesias (Institute of Government and Public Policy) </td><td data-bbox="539 855 1166 1222"> -현대 도시는 젠더를 기본으로 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음. 이러한 이유로 도시에서는 여성의 의사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가족이나 돌봄 책무가 없는 경제력을 가진 건강한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경우가 많음. 여성의 가정에서의 노동, 재생산, 무급 노동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도시는 여성과 남성의 공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도시는 남녀의 공존을 고려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포괄성을 깨닫고 이를 고려한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사회적 지속성이 가능해 질것임. </td></tr> <tr> <td data-bbox="371 1222 539 1676"> Helena Cardona Tamayo (Equal Saree 건축가) </td><td data-bbox="539 1222 1166 1676"> - 유동성은 도시 내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시의 생활과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이러한 유동성은 젠더에 따라 그 사용 패턴이 매우 다르므로 유동성의 젠더 분석이 매우 필요함. 유동성은 또한 민주주의 톨 및 사회적 직업적 통합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페미니스트 모델과 가부장적 모델에서의 유동성에 대한 분석이 상이하며 가부장적 모델에서는 Culture of distance를 페미니스트 분석에서는 Culture of proximity를 중시하며 가부장 모델에서는 유니버설 모델을 기본으로 한 이성애, 핵가족 중심의 무분별한 확장의 도시를 기본으로 페미니스트 모델에서는 다양하고 돌봄 주체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중요시함. </td></tr> </tbody> </table>	발표자	내용	강경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는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례임. 기존의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 서비스는 젠더 분석 없이 남성을 중심으로 지원 되었으나 젠더 분석을 통해 남성, 여성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이를 위해, 성별 영향분석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 이를 위해 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 여성과 아동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한부모 가족을 위한 매뉴얼 등 다양한 활동이 소개 됨.	Mariel Iglesias (Institute of Government and Public Policy)	-현대 도시는 젠더를 기본으로 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음. 이러한 이유로 도시에서는 여성의 의사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가족이나 돌봄 책무가 없는 경제력을 가진 건강한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경우가 많음. 여성의 가정에서의 노동, 재생산, 무급 노동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도시는 여성과 남성의 공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도시는 남녀의 공존을 고려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포괄성을 깨닫고 이를 고려한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사회적 지속성이 가능해 질것임.	Helena Cardona Tamayo (Equal Saree 건축가)	- 유동성은 도시 내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시의 생활과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이러한 유동성은 젠더에 따라 그 사용 패턴이 매우 다르므로 유동성의 젠더 분석이 매우 필요함. 유동성은 또한 민주주의 톨 및 사회적 직업적 통합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페미니스트 모델과 가부장적 모델에서의 유동성에 대한 분석이 상이하며 가부장적 모델에서는 Culture of distance를 페미니스트 분석에서는 Culture of proximity를 중시하며 가부장 모델에서는 유니버설 모델을 기본으로 한 이성애, 핵가족 중심의 무분별한 확장의 도시를 기본으로 페미니스트 모델에서는 다양하고 돌봄 주체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중요시함.
발표자	내용								
강경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는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례임. 기존의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 서비스는 젠더 분석 없이 남성을 중심으로 지원 되었으나 젠더 분석을 통해 남성, 여성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이를 위해, 성별 영향분석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 이를 위해 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 여성과 아동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한부모 가족을 위한 매뉴얼 등 다양한 활동이 소개 됨.								
Mariel Iglesias (Institute of Government and Public Policy)	-현대 도시는 젠더를 기본으로 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음. 이러한 이유로 도시에서는 여성의 의사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가족이나 돌봄 책무가 없는 경제력을 가진 건강한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경우가 많음. 여성의 가정에서의 노동, 재생산, 무급 노동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도시는 여성과 남성의 공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도시는 남녀의 공존을 고려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포괄성을 깨닫고 이를 고려한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사회적 지속성이 가능해 질것임.								
Helena Cardona Tamayo (Equal Saree 건축가)	- 유동성은 도시 내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시의 생활과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이러한 유동성은 젠더에 따라 그 사용 패턴이 매우 다르므로 유동성의 젠더 분석이 매우 필요함. 유동성은 또한 민주주의 톨 및 사회적 직업적 통합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페미니스트 모델과 가부장적 모델에서의 유동성에 대한 분석이 상이하며 가부장적 모델에서는 Culture of distance를 페미니스트 분석에서는 Culture of proximity를 중시하며 가부장 모델에서는 유니버설 모델을 기본으로 한 이성애, 핵가족 중심의 무분별한 확장의 도시를 기본으로 페미니스트 모델에서는 다양하고 돌봄 주체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중요시함.								

구분	내용
	Georgina Monge (바르셀로나 시의회)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실시된 유동성의 젠더 분석에 따르면 남녀에 따라 교통 시설 이용이 다름.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단거리를 이동하며 이동이 꼭 일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음. 여성은 차량 구입이 많지 않으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남성은 이에 비해 차량 소유가 많으며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함. 유동성에 대한 분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포함 함. 분석을 통한 결과로 접근성, 근접성, 빈도, 안전 등을 고려한 정책 디자인이 제안됨. 

□ 세부과제 4 : 국제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회 의 명 : 제 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2011년 1차 포럼 개최)
- 주 제 : Building inclusive and safer cities for women
- 일 시 : 2016년 9월 1일(목) 10:00~17: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주 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후 원 : 서울시, UN Habitat, 후아료위원회, Citynet
- 대 상 : 아시아 도시 여성 시장, 부시장, 정책 전문가, 여성 단체, 여성 NGO, 시민 등 300여명

○ 주요내용

9월 1일 (목)	도시 안전 포럼	기조 연설	○ 여성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 비교적 안전한 도시에서 ‘완전히 안전한 도시’를 위해
		세션	○ Session 1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 도시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및 시민 단체의 노력, 민관 파트너십 사례와 문제점 개선 사항 등 ○ Session 2 :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해로부터의 여성 안전에 대한 논의, 재해 발생 시, 복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해결 방안 논의
		총회	○ 여성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아시아 도시의 제언 - 아시아 도시의 실천 전략 및 제언(Recommendation) 발표
9월 2일 (금)	기관 방문 및 투어	○ 일 시 : 2016년 9월 2일 09:00~18:00 ○ 방문지 : 서울혁신파크(살림센터, 청년허브), 아름다운 가게, 인사동, 시민청, 서울도서관, 덕수궁 등 ○ 참가자 : 국외 연사 및 참가자 15명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비 고
10:00-10:10	포럼 개회	개회사 :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환영사 :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Session 1 :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좌장: 스리 후스나이니 소프잔, 후아료위원회 위원		
10:10-11:30	발표	자연 재해와 여성 우메타니 준코, 효고현 지사 특별 자문관 여성이 주도하는 재난 위험 감소(DRR): 회복력, 대응 및 복구 콜라존 줄리아노 솔리만, (전)필리핀 사회복지부 장관 새로운 도시 아젠다(New Urban Agenda)에서 ‘여성을 위한 안전 도시’의 역할 사엘 코테스, 시티넷 안전도시 담당관
11:30-12:30	토론 질의 응답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경신, 국제개발협력민관협의회 인도지원팀 부장
12:30-14:00	점심	
14:00-14:20	기조연설	여성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 비교적 안전한 도시에서 ‘완전히 안전한 도시’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Session 2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좌장: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14:20-15:40	발표	여성의 안전과 도시 공간 : 텔리 집단 강간 사건에 대한 대응 파멜라 필리포스, 텔리 자고리 이사회 위원 젠더관점에서 본 도시에서의 폭력: 지방정부의 책무 라우라 페레즈, 메트로폴리스여성네트워크 의장 세베랑페라이시, 여성 안전을 위한 노력 놀리자 압둘라, 세베랑페라이시 도시계획 국장
15:40-16:20	토론 질의 응답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조이다혜, 서울여성회 성평등마을사업단장
폐회 세션 : 여성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아시아 도시의 제언		
16:20-17:00	아시아 도시의 제언 및 노력	- Recommendation(제언) 발표 - 아시아 도시 여성 네트워크의 향후 협력 및 노력
17:00	폐회	

○ 세부 내용

- 세션별 주제 발표 및 토론

※세부 내용 첨부 1.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 결과 보고서 참조

- Recommendation(권고문) 채택

- 참여 도시 및 기관 : 서울, 텔리, 효고현, 시티넷, 마닐라, 세베랑페라이,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후아료위원회



Recommendation 발표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승인



Recommendation 승인

○ 후속 조치

- Recommendation(권고문) UN Habitat 사무총장 전달
- UN Habitat Joan Clos 사무총장에게 Recommendation의 내용이 UN Habitat III New Urban Agenda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한 발송(2016.9.13.)
- Recommendation(권고문) UN Habitat III 컨퍼런스 공유(10.15~10.20)

□ 세부과제 5 : UN Habitat III 컨퍼런스 참가

○ UN Habitat III 개요

- 개최 기간 : 2016년 10월 17일 ~ 20일 (사전 세션 : 10월 15일)
- 개최 장소 : 에쿠아도르 키토 Casa de la Cultura Benjamin Carrion 외
- 주 제 :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주요 내용
 -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주제에 대한 논의 진행
 - 향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침인 New Urban Agenda 채택
 - 참가 대상 : 중앙·지방 정부 대표, 의회 의원, 시민 단체, 국제기구 전문가 등 45,000여명
- 회의 구성 : Plenary Session(총회), Special Session(특별 세션), Paralle Event(병렬 행사), Side Event(부대 행사), Networking Event(네트워킹 행사) 등

○ 재단 참여 행사 개요

일자	회의명	개 요
10.15(토) 10:00~18:00	Women's Assembly (Agora, Casa de la Cultura)	- 주관 : UN Habitat Gender Unit, UN Women - 프로그램 · 오프닝 : 환영사(Rosario Uteraz), Aisa Kacyira (UN Habitat), Lakshmi Puri (UN Women), Jan Peterson (Huairou Commission) 사회(Sri Sofjan) · 세레모니, 여성 운동의 다양성 기념 · Plenary Panel , NUA, SDG 정책 프레임워크의 실행 통합을 위한 리더십 · Break Sessions (10개 세션, 주제별 9개 세션) · Break Sessions 내용 공유 · Action Agenda 통합 · 폐회 - 재단 참여 · Break out 세션 ‘여성 안전’ 주제 분야 Moderator 참가(강경희 대표이사)



일자	회의명	개 요
10.18(화) 08:00~09:00	Women's Caucus (Caucus 룸)	- 주관 : 후아료위원회 - 재단 참여 - 제 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 Recommendation 발표 및 공유  
10.19(목) 13:00~15:00	Special Session 'Safer Cities'	- 주관 : UN Habitat 주관 - 협력 : UNODC, World Bank, UNICRI, DPKO:SRSG UNICEF, UN-WOMEN, UNDP, WHO, UNU, UNODA - 주제 : Towards a Global Partnership Initiative on Safer Ci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 재단 참여 -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및 New Urban Agenda 이행 계획 발표  
10.20(금) 13:00~13:45	부대 세션 개최	- 세션명 : Women-Friendly City Challenge: Make your city the most women-friendly in the world - 주최 : 밴쿠버 Women Transforming Cities International Society, Huairou Commission,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내용 : 밴쿠버 및 서울의 여성, 여아를 위한 정책 공유 - 재단 참여: 서울시 여성 안전 정책 소개(여성안심특별시, 여성안심특별시 2.0 등)  

○ 세션별 주요 내용

- Women's Assembly Break Session

	주 제	논의 결과
1	Women's Political Agenda and Representation in Urban Decision Making	○ Commitments - 시민사회/정치인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확립, 정치인과 풀뿌리 여성간 멘토링, 농촌이나 정치 폭력 지역의 접근 및 자유 보장, 여성의 지역 정부 디자인, 모니터링 의사 결정 평가 참여 보장 ○ Resource Needs - 예산 및 교육
2	Women's Economic Empowerment, Decent Job Agenda,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and Women in the Informal Economy	○ Commitments - 풀뿌리 여성 및 노동자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의 다양한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플랫폼 구성하고 도시 행정가와 직접적으로 도시 정책이나 거버넌스가 가능토록 하는 것, 향후 2년간 풀뿌리 여성이나 비공식 근로에 있는 여성들의 보육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 적어도 3개 도시에서 참여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가들에게 결과 전달, 풀뿌리 여성 및 비공식 근로자들을 포함하는 NUA를 위한 공식적 모니터링 메카니즘 확립 요청.
3	Cities Safe for Women: Safe Public Spaces Free from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강경희 대표이사 Moderator 수행	○ Commitments - 중앙, 지역 정부에서 여성과 여아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권리 기반의 접근으로 지식,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풀뿌리 리더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지원, 여가와 청년 여성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인식하고 세대간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포괄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역량 강화 지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 이니셔티브 실행을 위한 핵심 에이전트임을 인식하고 이의 실행. ○ Resource Needs - 적절한 자원, 나이, 성, 민족 등 분리 데이터, 진전사항과 결과에 대한 규칙적 모니터링
4	Promoting Grassroots Women's Leadership and Agenda in Slum and Informal Settlement Upgrading & Development	○ Commitments - 100개 도시에 대한 데이터 조사 실행, 도시의 가난한 여성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 Peer to peer 지식 교환을 도시 가난한 여성들의 NUA 실행 모니터링 ○ Resource Needs - 정부와 기부 파트너들의 우선적 지원, NUA 실행의 파트너로서 도시 가난한 여성들의 참여 확보, 정부의 풀뿌리 여성들의 도시 발전을 위한 참여 인정 등

	주 제	논의 결과
5	Recognizing & Resourcing Rural - Urban Links	○ Commitments - 여성과 도시-지방 연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지와 혁신 강화, 세금이 도시-지방 연계를 위해 잘 쓰여지는 지 모니터링,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Resource Needs -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 구매 활성화

- Women' s Caucus

Harritet Tregonic	- 미정부 주거 및 도시 개발 부서에서 여성관련 일을 하고 있음. 관련 부서에서는 고위층에 여성들이 많아 관련 일을 많이 진행할 수 있으며 영광스럽게 생각함. 주로 다루는 문제는 1인 여성 가구 관련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조례에 관한 것임.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 가정 폭력 발생 시 신고를 하면 여성들이 아이들을 위해 집에 남거나 떠나거나 결정을 해야하는데 여성들이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노년 여성의 문제 또한 다루고 있으며 노년 여성의 경우, 집이 있으나 수입이 고정되어 있어 세금이나 경제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음. 이런 여성들을 위해 Granny Flat, Garage Apt. 같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한 주택은 대여를 통해 일정한 수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강경희 대표이사	- 지난 9월 아시아 여성들이 모여 포럼을 개최하고 아시아 도시 여성 안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인도 델리, 서울, 일본 효고현, 필리핀 마닐라, 말레이시아 세베랑페라이, 후아료 위원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시티넷 등이 모여 포럼의 결과물로 Recommendation 을 채택함. 권고문에는 여성을 위한 안전하고 포괄적 도시를 위해지방정부, 여성 단체, 국제기구들이 실행해야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권고문은 여성 폭력없는 안전한 도시 공간, 자연 재해로 부터의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여성의 참여 확대, 시민의 인식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 안전은 가장 성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성을 위한 안전이 실현될 때 모두를 위한 안전한 도시가 가능할 것임. - 참가한 세계 도시시의 권고문 이행 참류를 독려함.
Anna Tibaijuka	- UN habitat III 참석한 모든 여성 리더들을 환영함. 오랜기간 동안 여성을 위해 풀뿌리 단체를 위해 활동한 Jan에게도 박수를 보냄. 여성은 오랫동안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음. 이제는 여성의 지위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함. 여성은 더 이상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며 주요 주체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지원해야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임.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임.

- 특별 세션 Safer Cities

Jose Serrano Ministro del Interior, Ecuador	- 에콰도르는 75%가 가난하며 가장 unsafe city라고 할수 있음. 또한 불평등도 굉장히 심함.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가 가장 큰 문제임. - 젠더 폭력, Femicide등의 문제도 심각하고 이러한 여성 관련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Hassell Pinto-Mendoza Regional Network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f Latin America	- 청년, 아동들은 살해, 강간 및 다양한 범죄로 안전하지 않고 위협에 대한 예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이의 해결을 위해 청년과 지방 정부간에 안전을 위한 공공 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청년들이 안전할 수 있는 Green Public Space를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임. - 청년들이 환경 개선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음. - 이외에도 교통 신호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진정한 보호가 필요함.
Alex Munive Plan International	- 어린이등이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권리를 어디서 알수 있는지를 아는것도 매우 중요함. - 의사 참여 과정에 아동과 청년도 참여 할 수 있어야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장관도 참여하기 바람.
강경희 대표이사	- 서울시는 ‘성평등한 도시가 되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면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된다’ 는 신념하에 성인지적인 도시 안전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을 비롯한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여성안전 정책으로 비혼 1인 여성가구 위해 여성안심택배 서비스와 홈방범 서비스(자동방범 시스템, 24시간 모니터링, 긴급비상벨, 무선감지센서 등을 설치) 도입,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지킴이집, CPTED확대, 안심 택시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참여 증대, 도시 환경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성별 분리 통계 생산등의 노력을 함께 하고 있음. - 9월에는 아시아 도시와 여성 안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정부, 여성 NGO, 국제기구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권고문을 채택함. 서울의 이러한 노력을 다른 도시도 함께 해주길 바람.
Kathlyn Travers Executive Director, WICI	- 여성,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안전한 도시가 아님. NUA, SDGs까지 온 것은 축하해야할 일이며, 이제 글로벌 의제를 지역화하는 것이 필요함. 뭘 해야할지 실행을 위한 약속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틀이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Raymond Louie Mayor of Vancouver	- 안전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임. LGBTI, 이민자 등 다양한 집단 모두를 포함한 안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함. - 캐나다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여성의 동등함 임금, 정치적 리더 증대 등을 통해 다양한 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안전의 문제는 여성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며, 중앙, 지방 등 파트너십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임.
CMNCP	- CMNCP는 지방, 중앙, 국제기구가 안전을 위한 통합적 전략을 세우기 위한 협력을 이끌기 위해 지원하고 있음. 또한 지역 안전 전략, 톨, 자원 등 안전한 도시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Russell Copeman Deputy Mayor of Montreal	- 몬트리올은 비교적 안전한 도시임. 커뮤니티의 참여를 통한 폭력 방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Prevention 센터 설립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전 관련 사례 등 공유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부대 행사 ‘Women Friendly City Challenge’

서울의 여성안전정책	- 서울시에서는 ‘여성안심특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안전정책을 펼쳐왔음. - 올해는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여성안심특별시 2.0’ 정책을 발표했음: ‘아날로그디지털 안심’에서 ‘스마트 안심’으로, ‘보호받는 여성’에서 ‘참여하는 여성’으로, ‘폭력 안심’에서 ‘재난재해 안심’까지 안심영역 확대. 그러나 스마트 안심 정책에서정보인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도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계획, 집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연구, 토론회 등 다양한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만큼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밴쿠버의 여성친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	- WTC는 도시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왔음. - 주요 사업으로 30+ monthly Cafes and Urban Thinkers Campus, Hot Pink Paper Municipal Campaign(지자체 선거용 가이드), “Advancing Equity and Inclusion: A Guide for Municipalities.”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자체 만들기 자료집)이 있음.
도시의 여성친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노력	- 본 세션 참가자/단체들이 각 도시의 여성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wise practice)들을 소개, 공유, 평가하는 틀을 구축해 나가기로 결의 -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주제 범주: 거버넌스/리더십, 안전, 주거, 경제, 교육, 건강, 교통, 레질리언스, 아동·노인 돌봄 등

□ 세부과제 4 : 국외 기관 간담회 개최

홍콩사회서비스협회 (여성, 가족관련 담당자)	일시: 2016년 11월 1일(화) 14:00-16:00 내용: 한국, 서울의 가족 관련 법제도(육아 휴직, 출산휴가 등) 및 보육, 가족 정책 등 공유	
팔레스타인 제닌 청소년센터 건립사업 실무자 (KOICA)	일시: 2016년 11월 25일(금) 14:00-16:00 내용: 청소년 센터 내 여성 관련 시설 설립 과 관련하여 서울여성플라자 시설 소개. 서울의 여성 지원 프로그램 및 여성 정책 등 공유	

2)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

□ 추진성과(추진실적)

○ 실적 : 국외 네트워크 구축 및 성평등 의제 확산 : 6회 (100%)

세부 사업	사업 시행
제 60차 UN CSW 참가 및 발표	2016년 3월
온라인 무브 13호 발간	2016년 6월
메트로폴리스 워크숍 참여	2016년 7월
제 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 개최	2016년 9월
UN Habitat III 컨퍼런스 참여	2016년 10월
온라인 무브 14호 발간	2016년 12월

□ 홍보실적

○ 제 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

- 재단 홈페이지 홍보 및 웹 초청장 발송



재단 홈페이지



웹 초청장(국문)



웹 초청장(영문)

- 관련 뉴스(총 10건)

“여성이 안전한 도시“ 아시아여성 네트워크포럼 서울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아시아 여성 정책 전문가와 국제기구, NGO 등이 서울에 모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9월 1일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2회 아시아여성 네트워크포럼을 개최한다.

세계 137개 대도시연합인 메트로폴리스 산하 여성기구인 여성네트워크, 세계 54개국 풀뿌리 조직 및 여성단체 연합인 후아료위원회, 아태지역 130개 도시 및 기관 연합인 시티넷, 일본·인도·필리핀·네팔 등 여성 정책 전문가, 국내 여성정책 관련 활동가 등 300명이 참석한다. 아시아여성 네트워크포럼은 아시아 도시 여성이 처한 문제를 논의하고 우수 정책 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자리로, 제1회 행사는 2011년 9월 서울에서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조연설에 나서 “성평등한 도시가 되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된다”며 서울시 여성 안전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주제로 재난·재해 발생시 여성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큰 사례를 짚어보고, 재난시 여성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망자 중 여성이 125명으로 남성(61명)의 두 배였고 동일본 대지진 여성 사망자가 남성보다 1천명 가량 더 많았다는 점이 공유된다. 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주제 세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이 논의된다. 포럼 참석자들

은 여성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지방정부, 지역커뮤니티, 여성시민, 국제네트워크가 할 일을 제안하는 합의문을 발표한다. 이 합의문은 10월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3 총회에서 공유한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29일 “아시아 여러 도시가 겪는 여성 안전 문제 해결 방안을 서로 연대해 찾는 자리”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

2016/08/29	연합뉴스	“여성이 안전한 도시” 아시아여성 네트워크포럼 서울 개최
2016/08/29	뉴스스	‘아시아여성 네트워크포럼’, 9월1일 서울 개최
2016/08/29	여성신문	‘여성이 안전한 도시’ 아시아여성 네트워크포럼 1일 개최
2016/08/29	불교공뉴스	제2회 아시아여성 네트워크포럼
2016/08/29	TBS교통방송	‘제 2회 아시아여성 네트워크포럼’ 서울 개최
2016/08/29	뉴스 1	‘여성 안전 도시 만들기’...아시아여성 국제포럼 개최
2016/08/29	이데일리	아시아여성 국제포럼, 서울 개최
2016/09/01	여성신문	박원순 “여성에게 ‘완전히 안전한’ 도시를 꿈꾼다”
2016/09/01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 “성평등 도시 구현 적극 노력”
2016/09/02	일요신문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넘어 성평등한 도시 구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UN Habitat III 컨퍼런스 참가

- 관련 뉴스 (1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 유엔 해비타트총회 참석’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는 지난 17~20일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에 참석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전 세계 도시의 참여를 권유했다. 20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운동가 등 4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미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선 앞으로 20년 간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실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새로운 도시 의제를 채택했다.

강 대표가 발표한 권고문에는 아시아 도시의 성평등, 여성 역량 강화, 여성안전 이슈 등이 담겼으며 해당 내용은 지난달 열린 제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에서 채택됐다. 아시아여성네트워크포럼은 아시아 도시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논의하고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2011년 1회 포럼에 이어 지난달 2회 포럼이 열렸으며 아시아 도시의 여성정책 전문가, 국제기구 의장, NGO 활동가, 시민 등 300여명이 모여 ‘여성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논의했다.

... 이하 생략

<http://www.womennews.co.kr/news/99203>

7. 사업평가

□ 담당자 평가 및 의견

○ 국제 컨퍼런스 참가 및 발표

- 2016년 제 59차 UN CSW에 이어 제 60차 UN CSW 참가, UN Habitat III 컨퍼런스 등 글로벌 주요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서울의 여성 정책 국외 도시 공유 및 글로벌 여성 이슈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함. 또한 올해는 UN Habitat III에서 세션 참여 발표뿐만 아니라 국외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세션을 개최하여 주체적 참여를 이룸. 향후 관계 기관 및 도시와의 관계망 형성 및 이를 통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제 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
 - 평가 대상: 포럼 참여자
 - 평가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평가
 - 평가 내용: 행사 전반, 내용, 주제 적절성, 환경 및 서비스 등 전반 평가
 - 평가 결과

<세션별 만족도>

세션 구분	만족도
재해로부터의 안전	4.3
여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4.2
Recommendation 채택 및 발표	4.1
전체 주제에 대한 이해	4.2

〈포럼 환경 만족도〉

구분	만족도
포럼 시간	4.1
포럼 장소	4.4
포럼 운영	4.3

〈포럼 전체 만족도〉

구분	만족도
포럼 전반적 만족도	4.2

□ 외부 전문가 평가

○ 최종 심의

심의 항목	평가결과
1. 사업기획의 적정성	-사업 기획은 글로벌 주요 국제 이슈의 국내 확산, 국내 여성 이슈의 국제 확산에 주력하고 서울시 정책을 국외에 알리고자 하는 목표로 세워진 기획이기에 목적에 맞게 설정되었다고 평가함. -한정된 예산으로 아시아 선도도시로서 글로벌 성평등 의제 논의 참여 및 정책 교류라는 적정한 목표를 잘 달성한 프로젝트로 평가 됨. 신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도 잘 이루어짐
2. 사업수행과정의 체계성	-사업 수행의 방법론으로 자문, 시행, 평가를 사업 수행 과정에 포함시킨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과제 목적과 목표에 대한 중, 장기 계획의 부재 가운데 진행된 사업의 주제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2016년 추진되었던 네 추진 사업 간의 체계적 연계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함.
3. 사업내용의 전문성 및 충실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격과 활동 사업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업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이 기간 내부에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계획한 목표에 맞춰 사업들이 충실히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됨. 다만 올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의 충실성을 위해 국제협력프로젝트가 분리된 하나의 또 다른 사업이 아니라 재단과 서울시의 여성 정책이 어떻게 글로벌 주요 국제 이슈와

심의 항목	평가결과
	연결돼 있고 그 글로벌 주요 국제 이슈들의 국내 확산과 국내 여성 이슈의 국제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중, 장기 목표 설정과 사업 수행과정 후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성과를 분명히 제시해 매 사업 추진 후 재단과 서울시 내에서 사업 내용이 연계돼 논의되고 공유되었는지, 그 후속 사업을 어떻게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 진행하기로 논의,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함께 동반되었다면 이 사업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의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4. 사업결과의 효과성 및 선도성	-진행한 각 사업들이 글로벌 주요 국제회의의 참여를 통해 서울의 여성 정책을 국외 도시 및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었고 글로벌 여성, 도시 이슈들에 대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여러 주요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능케 한 것은 사업 결과의 효과성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제 2회 아시아 여성 네트워크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여러 아시아 도시 및 여성 시장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시도한 것은 사업 결과의 선도성으로 평가함.
5. 기타	-재단이 세운 올 사업 기획의 목표는 한 해에 이를 수 없는 목표 이기에 그 목적에 맞게 설정된 현실적 중, 장기 사업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전략적 실천 계획에 근거한 인적, 재정적 자원 확보에 대한 필요가 시급해 보임. -2016년은 UN SDGs가 출범한 첫 해이고 지방정부의 이행노력도 요구 되는 바, UN SDG 목표 5 및 세부 지표에 따라 서울시 정책 이행 계획과 모니터링 결과 공유 활동을 위한 활동으로의 전환도 필요. -회의 참석 및 컨퍼런스 개최에 더해 서울시 여성 우수정책에 관심 있는 도시를 초청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단기 Study Visit도 국외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

8. 향후 개선계획

□ 국내 정책의 영문 번역 작업을 통한 국외 홍보 활용

- 국내 여성 정책의 국외로의 적극적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성 정책을 영문으로 생산하는 작업이 필요함. 여성 안전 정책, 성주류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영문화 작업을 통해 국외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도시,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속성 강화

- 재단은 9월 초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도시 안전’을 주제로 아시아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함. 제 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안전을 위한 권고문을 아시아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통해 채택한바 있으며 향후 여성을 위한 안전한 도시를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음. 향후 SDGs 및 New Urban Agenda의 도시 실행 모니터링 등 도시와의 협력 사업 실시를 통해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부록 1 제 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 권고문(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OF THE 2nd ASIAN WOMEN'S NETWORK FORUM "Building Inclusive and Safer Cities for Women"

Recogniz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169 targets, one of which is Goal 11 – makes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Following the 2nd Asian Women's Network Forum with the theme "Building Inclusive and Safer Cities for Women", participants representing Asian city officials, women NGO activis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experts has agreed on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governments, NGOs, women's organizations, and the international networks take action for a more inclusive, more gender responsive and safe cities for all residents.

RECOMMENDATIONS FOR LOCAL GOVERNMENT

First, in order to create safer cities, local governments should in their policy making take into consideration factors like the gender, age, nationality and language of those who comprise the city's population from a perspective of prevention of violence through safety governance. Special provisions should be made to accommodate those who are differently abled, who have multiple responsibilities as care-givers, or who may come from different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put in place systems to prevent and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and to ensure safety in situations of disasters and catastrophes. They should conduct gender-centric analysis of current safety levels prevailing in their cities and collect reliable gender-sensitive data that should guide them in their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on.

Third, local governments should evolve urban plans and designs to guarantee women's safety. Urban spaces, like streets, parks, public toilets, housing, and transportation systems should be designed in a manner that ensures the safety of women as well as of other vulnerable groups like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Fourth, local governments are urged to acknowledge the practical knowledge and leadership of women, from neighborhoods to city levels, and should actively encourage women's participation in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es, especially while devising plans and strategies for women's safety. In addition, female representation in crisis management committees should be enhanced particularly with regard to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business interventions on safety.

Fifth, local governments should come up with gender-responsive safety guidelines and establish support systems for women survivors of violence as well as communities that are vulnerable to disasters. For example,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legal support, medical support, and professional counseling and set up adequate shelters for victims of violence including the provision of space for women. Local governments together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increase female participation in training for disaster management, including emergency evacuation measures. They should also ensure clear signage and public messaging on where disaster shelters are located, educate the public on recognizing emergency warnings, and draw up gender-responsive guidelines for each type of disaster, keeping in mind the specific needs of women. There are other affected and other vulnerable sectors in society such as the elderly, children, immigrants and the disabled that must be provided with rights-based support.

Sixth, local authorities like the police, the emergency services, and the public transport services should ensure that their personnel are sensitized to these concerns, and trained to respond to violence against women and disasters in a gender-centric, gender-sensitive manner.

Seventh, the national government must provide full support to implement policies and programs that support the recommendations.

RECOMMENDATIONS FOR LOCAL COMMUNITIES AND CITIZENS

First, female citizens and neighborhood communities should organize and participate in 'A city free from violence against women' campaign, with the media encouraged to prevent the issue by raising public awareness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 to safety and mobility. These improvements should go in line with globally accepted principles of inclusion for all groups regardless of gender, ethnicity, age or religion.

Second, women's organizations and local communities should work together on mobilizing local communities for women's safety. It should be mandatory for all community activities to have equal gender representation,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dolescents and girls.

Third, grassroots women's organizations should conduct safety audits in local neighborhoods with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in order to evolve way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ommunity safety net.

Fourth, women in communities should run safety leadership training programs for women and girls. Women should be encouraged to share their everyday experiences and suggest measures to address safety concerns.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NETWORKS

First, building on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and cultural similarities, cities in Asia should work together to share their experiences in recovering from disasters, tackling violence in all forms, including gender violence, and in ending a culture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impunity. These improvements should go in line with globally accepted principles of inclusion for all groups regardless of gender, ethnicity, age or religion.

Second, the international city network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ity-to-city partnerships and networking in order to build a safe urban environment for women. International cities should acknowledge that they are accountable for women's safety and must put in place plans and practices in achieving this end.

Third, the international city network should recognize that gender equality and a non-discriminatory social environment are important for women's safety.

Fourth, the international city network should share the agreed recommendations with all cities and regions in Asia.

Fifth, the international city network should also share its vision and best practices on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as well as its disaster safety policies with other cities of the world.

Asi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Asian Dialogue

In collaboration with:

K.H. Angela Kang,
President of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Seoul, Korea



Kyu Sook Um,
Assistant mayor of Women and Family Affairs Offi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Korea

Umetani Junko,
Special Adviser to the Hyogo Governor for Regional,
Revitalization & Women's Empowerment, Hyogo Prefecture, Japan

梅谷 順子

Corazon Juliano Soliman,
Former Secretary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of the Philippines, Manila, Philippines



Pamela Philipose,
Board Member of Jagori, Delhi, India

Pamela Phili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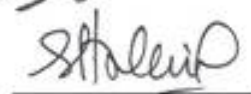
Laura Pérez
President, Metropolis Women International Network



Sayel Cortes,
Safer Cities Program Coordinator, CityNet



Sri Husnaini Sofjan,
Senior Program Strategist, Huairou Commission



Norliza Abdullah,
Director of Town Planning,
Municipal Council of Seberang Perai, Malaysia



부록 2. 온라인 무브 13

Making Seoul Gender Equal!

MOVE

June 2016
Vol. 13

A discussion forum on the women's safety held celebrating International Women's Day

Gender Focu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held a discussion on women's safety on Mar 8th in celebration of International Women's Day. In this discussion forum, the stories of women's safety were told not by policy experts or administrators but by Seoul citizens who are struggling hard for women's safety in their own positions. Participants shared stories of 'Chiesi Saram (First person)', an organization monitoring whether legal system properly works to protect right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local police officers supporting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also activities of Good Neighbors which prevent child abuse and help victims of child abuse. They reached a consensus that each of every citizen should become a networker and make efforts for safety of women in the community. K.H. Angela Kang who was appointed as President of SPWF on the day of Mar 8th also attended the forum and shared the organization's commitment to women's safety with citizens.

SPWF Report & Resources

SPWF Research

- A Study on Switching Over from Large Child Welfare Institutions to Group-Family
- Establishment of Gender-Fairage Min-Geukjeon to Overcome Welfare Standards for Social Citizens
- A Study on Sustainability of Co-governing Community Support in Seoul
- Gender-Employment Impact Analysis on Employment Services of Seoul
- A Study on Policy through Analysis of Pastors' Meeting Seoul's Family Role
- A Support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Women'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Seoul - Focus on Handicrafts (Handicraft) Cooperatives
- The Study on Labor Environment of the Disabled Women in Seoul - Focus on the Labor Market Entry and Job Maintenance
- A Study on Prelimina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for Various Family Care Services

SPWF NEWS

The 2nd Asian Women's Network Forum
"Building an Inclusive and Safer Cities"
will be held in September 1, 2016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s scheduled to hold 'the Second Asia Women's Network Forum' on the 1st of September to discuss safety of women living in a city. Murder of a woman taking place as a crime in public bathroom in the bustling Gangnam on the 17th of May reminded us of the gravity of women's safety issue in public places. Social discussions are underway over women's safety issues in a city and plans for its solution, but still women are exposed to various kinds of violence in home and public places. Especially women in Asia are suffering from violence against women as public spaces, rape, domestic violence, hate crime against women, etc. Therefore, by building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with Asian policy makers in the area of women's safety, SPWF intends to discuss how we can address women's safety issues in urban areas. It is also going to help crises form networks through the Asian Dialogue to ensure safety of women living in a city and will continue to collaborate for urban safety.

We hope that many of you can participate in the Second Asia Women's Network Forum. For any cities which want to share strategies for women's safety, please contact as below.

Asst. Director HKS, Tel: 82-2-610-0228, E-mail: hks@seoulwomenscenter.or.kr

Murder of a woman at Gangnam on May 17th angered women

On May 17th 2016, a 35-year-old woman was murdered by a man in a public bathroom in Gangnam. This mentally disturbed man who thought he had often been looked down on by women walked for a woman to enter the bathroom and stabbed her to death. This murder case prompted a wave of commiseration and reminded us of seriousness of misogyny and women's safety. It also caused a heated debate over whether it is misogyny crime or random crime by mental patient. However, many women regarded the case as misogyny crime, asking improvement in the women's safety by leaving messages or holding a demonstration in memory of the victim. Installing a memorial on the first floor of Seoul Women's Plaza and keeping messages and memory of citizens, SPWF intends to create a new history of women. It will also hold a policy discussion on July 2nd with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itizens and experts to improve policies for women's safety, as women's policy of Seoul, and comes up with an 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 for improvement.

For child abuse, prevention is the best way.

In the first half of 2016, in Korea, numerous cases of child abuse became a social issue. There were endless news stories including a child abused and killed by its parents at home and another child abused by its teacher at day care. SPWF also held a discussion on May 27th about 'child abuse in Seoul will be tackled with community' to enhance collaboration with communities and come up with ideas to prevent child abuse. The organization is making every effort to eliminate child abuse through accessible activities including display of posters about child abuse cases at home and abroad, development of guide and check list to prevent child abuse targeting parents, children and school teachers, and on-site training for them.

Seoul Women's Policy

'Seoul, Safe City for Women 2.0'

Celebrating Mar. 8th International Women's Da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leased 'Measures of Safe City for Women 2.0' on Mar. 8th, which is comprised of 16 projects in the four categories including Smart App, Inspection Group against Hidden Camera, For women's safety, Seoul is aimed to develop and install remotely installed Smart App in September this year, a 24-hour smart one-stop safety network connecting smart technologies, CCTV and integrated control center in the district offices of Seoul. It also plans to form an inspection group to prevent crime using hidden cameras and detect any cameras hidden in the bathroom of subway, stairs or living room.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implement various policies for women's safety including development of women's safety index, creation of gender specific natural disaster manual and community by district citizens that are safe for women.

Web Access: www.seoulwomenscenter.or.kr



III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1. 과제배경
2. 과제목적
3. 과제목표
4. 전년 대비 개선사항
5. 과제개요
6. 세부과제 진행과정 및 추진실적
7. 사업평가
8. 향후 개선계획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1. 과제배경

□ 추진배경

- 서울시 독거어르신의 비율은 여성이 71%, 남성은 29%로, 여성독거어르신의 비율이 2.5배 높고, 특히 75세 이상 독거어르신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5배 높음. 생활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 독거어르신이 겪는 질병 수가 1.6배 많고, 여성독거어르신의 무주택자 비율은 남성독거어르신의 3배이며, 월평균 소득은 여성독거어르신이 남성독거어르신의 79%뿐임.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독거어르신의 비율도 높음. 여성독거어르신 중 44.9%가 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고, 47.5%는 이웃과 연락을 하지 않고 고립 (2013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여성독거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지원방법 다양화 요구. 여성독거 어르신으로 대상을 특화한 문화 서비스는 여성독거 어르신들의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사회 관계망 형성 가능
- 재단은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문화소외여성 문화복지서비스 등을 다년간 추진하여, 문화소외여성, 재단의 협력사,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사회공헌 및 사회적 책임성 제고

- 어르신의 특성상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장시간 교육 프로그램은 어렵지만, 1년 12회 영화 상영 및 프로그램은 효과적임. 영화 내용과 관련된 성평등 주제로 시네마 세라피를 진행하며, 가족 이외의 관계망 형성 및 확장 필요성 홍보 필요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제5조,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 제5조, 제18조
- 서울시 희망공약 9 : 여성과 가족복지, 여성희망프로젝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제4조 4항(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 및 역량강화), 6항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2. 과제목적

□ 사업목적

- 문화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외 여성 어르신의 문화생활 향유 및 사회와의 소통 기회 제공
- 문화소외여성과 인적·물적 사회자원 연계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고 사회공헌 활성화

3. 과제목표

□ 사업목표 : 총 12회 진행

- 여성독거어르신에게 문화컨텐츠 제공을 통하여 상호 교류의 기회 제공
- 시네마세라피를 통해 어르신의 자존감 향상 및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4. 전년 대비 개선사항

□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총 25개 자치구의 복지관 및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홍보
- 활동력과 사회적 관계망이 적은 저소득 여성독거어르신이 참여가 용이하도록 진입장벽이 낮은 영화라는 문화서비스 제공
- 총 12회의 영화 상영 및 시네마 테라피 제공
- 접근성 때문에 인근 지역 참여도 많지만, 먼 자치구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는 일회성 참여 다수

□ 2016년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프로그램의 개선 사항

2015년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프로그램	2016년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개선사항
○ 가족, 공동체와 관련된 사회 문제	○ 주제의 다양화(질병, 죽음, 문화, 대인관계)
○ 영화 선호조사를 위한 담당자 간담회	○ 담당자 간담회에서 성평등 인권 관련 내용 포함

○ 다양한 주제의 영화와 시네마 세라피 제공

- 2015년 복지관 담당자는 어르신이 새로운 소재의 영화를 선호한다고 공지
- 영화 및 시네마세라피의 주제를 질병과 죽음, 가족 외 새로운 관계 형성, 과거 문화의 재조명으로 확대
- 시네마 세라피 중 일부는 생활 속 성 불평등한 편견 깨기, 여성노인의 생활에서 접하는 인권감수성 높이기 등의 내용 포함

○ 담당자 간담회의 전달 내용 강화

- 복지관 담당자들이 여성독거어르신과 만날 기회가 많으므로 젠더민감성 필요
- 간담회 내에서 짧게라도 재단의 사업소개, 성평등의 중요성, 이 사업의 취지 소개 등을 포함해 복지관 담당자들이 성평등 의식의 중요성 공지

5. 과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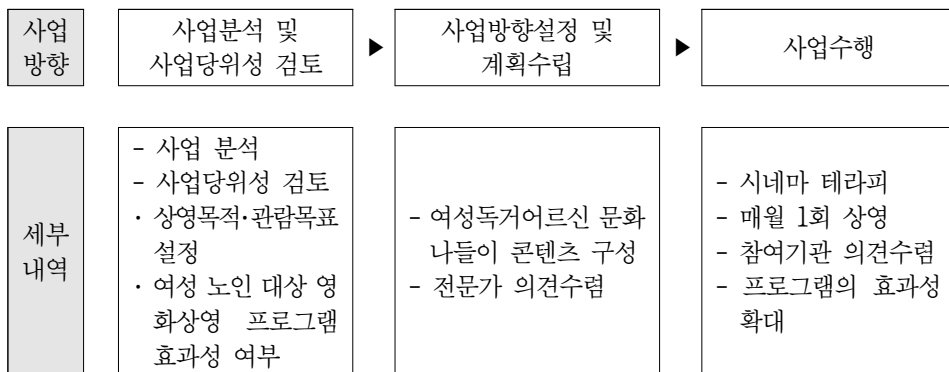
○ 사업기간

2016년 1월~12월 (영화 12회 상영/시네마 세라피 프로그램 제공)

○ 사업예산

5,600 천원

○ 추진방법



○ 타기관 교류실적 등

- 매 행사시 약 200여 서울시 어르신 관련 기관에 공문 발송
- 담당 복지관 실무자 등과 간담회 2회 실시

6. 세부과제 진행과정 및 추진실적

1) 추진과정 및 추진내용

□ 과제 진행과정

추진 방향 설정	•전문가 자문회의
세부사업 설계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방법 설계 •착수보고
세부사업 추진	•여성독거어르신문화나들이 영화 상영 홍보 •시네마세라피 진행
분석 및 평가	•참여기관 간담회 실시 •최종심의 실시
결과보고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그림>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추진과정

□ 착수 자문회의

- 일시 : 2016년 2월 5일 (금) 10:00~12: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5층 컨퍼런스룸
- 참석 : 총 8명 (※성평등도서관 여기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진행)

한국여성민우회 교육팀	김 희 영
서울여성회 언니네 작은도서관장	윤 미 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씨네페미니즘학교, 아카이브 보라 운영	허 경
재단 공동체팀	김창연, 이현주, 임경진, 이보미, 이주영

○ 논의안건

- 여성독거어르신들의 문화나들이의 목적 설정
 - 여성독거어르신은 모두 빈곤하고 불우하다는 설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
 - 프로그램 진행시 여성독거어르신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대한 반영 필요
- 여성독거어르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과 관련 주제의 영화 선정 및 효과적인 활용법
 - 여성 노인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있는 영화에 대한 추천 의견 제시

□ 회의사진



□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 과제명 :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 사업내용

- 대상 : 여성독거어르신을 포함한 노인기관 어르신

- 세부내용

- 월 1회(매월 둘째주 금요일) 시네마세라피 및 영화 상영(영화 관람 무료)
- 식사 제공 (식사비: 1,000원)

○ 사업기간 :2016. 1월 ~ 12월

○ 진행 행사 개요

일자	제목(제작연도, 감독)	주제	인원
1.22	썸씽 (2015, 김현석)	변화된 공동체, 성역할 변화	229
2.1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2014, 김성호)	공동체의 다양한 역할, 세대 간 문제, 연대와 공감	235
3.11	상의원 (2014, 이원석)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계층 간 갈등문제	333
4.15	허삼관 (2015, 하정우)	과거 공동체 문화의 성차별, 편견 극복기	335
5.13	장수상회 (2015, 강제규)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노년의 건강 문제와 가족관계의 변화	268
6.10	나의 사랑, 나의 신부 (2014, 임찬상)	결혼으로 생기는 갈등 및 관계의 변화	239
7.08	조선명탐정(2014, 김석윤)	조선시대의 계급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성찰	278
8.26	암살(2015, 최동훈)	역사 속 역할을 했으나 잊혀진 사람과 시대상 이해	236
9.09	플랜맨(2013, 성시흥)	빠른 속도의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및 다양성	267
10.14	미쓰와이프(2015, 강효진)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한 모습	241
11.11	뷰티인사이드(2015, 백종열)	외모 중심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인간관계에서의 극복	300
12.9	도리화가(2015, 이종필)	과거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	212
합 계			3,173

○ 영화 선정 기준 및 세부 행사 진행 내용

- 선정기준

1. 여성 독거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소외 혹은 사회 문제이자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영화는 이해하기 쉬운 드라마 형식
2. 자막을 읽어야 하는 해외 제작 영화는 선정하지 않음 (시력, 문해능력 고려)
3. 어려운 표현, 배경, 주인공 상황은 시네마 세라피스트의 소개를 통해 이해가능한지 여부

- 행사진행 내용

월	제목(제작연도,감독)	내용
1월	췌시봉 (2015, 김현석)	시네마 테라피는 1970년대 배경의 영화는 주인공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 설명. 주된 주제가 나오는 배경인 군사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이 당한 피해에 관련된 영화라는 설명과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들의 선택에 대한 정보를 공유. 상영시 여성어르신들은 영화에 나오는 노래 선호
2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2014, 김성호)	어린이들의 개를 훔치고 그 개를 되돌려 놓는 모험이 주된 내용. 어린이들이 그 개의 주인인 할머니, 노숙자와 만나서 겪는 우정 및 연대,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이 어르신에게 적합
3월	상의원 (2014, 이원석)	조선시대에 옷을 만드는 장인과 계급 문제를 인물들 간 갈등으로 다룸. 영화는 의복의 기능 중 사회적 권력 표시 기능, 기능성, 예술적 가치, 장인정신 등을 각기 추구하는 인물들 통해 역사로 기록된 것 이외의 역사를 표현
4월	허삼관 (2015, 하정우)	영화의 배경은 과거 농촌지역 공동체의 빈곤 가정. 남성 주인공이 아들이 생물학적 친아들이 아니라는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사건을 겪으며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라 현재 함께 모여 사는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내용. 시네마 세라피는 과거 공동체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차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연령차별, 성차별이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림. 그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로 인해 사회 변화 가능
5월	장수상회 (2015, 강재규)	영화는 노년의 치매, 질병으로 생기는 관계의 갈등을 표현함. 시네마 세라피에서는 노년에 생길 수 있는 치매나 질병으로 생기는 가족 간의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마을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중요성 공유
6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2014, 임찬상)	영화는 결혼 생활에서 겪는 구성원간의 갈등과 해결을 다룬 내용의 영화. 시네마 테라피에서는 과거 결혼이 의무였지만, 최근에는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 영화에서처럼 최근 맞벌이 커플이

월	제목(제작연도, 감독)	내용
		많지만, 남성은 사회적 성취를 우선이고 여성은 가족의 일을 책임진다는 과거 고정관념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 생긴다는 내용 공유
7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놈의 딸 (2014, 김석운)	영화는 조선시대에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겪는 부조리에서 시작해 계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주인공이 등장함. 과거의 잘못된 관습이 현대에 많이 바뀌었고, 여성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
8월	암살 (2015, 최동훈)	영화는 1930년대의 독립운동과 친일의 문제 그리고 방관자의 모습을 다룸. 김구와 김원봉, 의열단 등 역사적 사실이 영화에 거론됨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성주인공이 가족에서의 역할과 민족적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하는 보여주어 비극적 상황에서 여성의 선택과 자율성이 가능함 알려줌
9월	플랜맨 (2013, 성시흥)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씩은 갖고 있는 일종의 정신병적 증세 ‘강박증’에 대해 생각해보게 함. 어르신 세대와 달리 빠르고 바쁘게 변해가는 사회의 모습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을 들어봄
10월	미쓰 와이프 (2015, 강효진)	현대의 여성들의 삶에 대해 알려주는 시네마 세라피를 진행. 예전과는 달리 여성들도 일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욕구가 많아져서 예전처럼 가정에만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알림. 가족과 일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시네마 세라피 진행
11월	뷰티인사이드 (2015, 백종열)	여자, 남자, 아이, 노인 등 같은 사람이 외모가 바뀌는 영화 내용에 대한 시네마 테라피 진행. 사람들간의 관계가 외모나 나이에 의해 결정되고, 차별하는 사회의 관습에 대한 문제제기 및 생활 속 사례 공유
12월	도리화가 (2015, 이종필)	여자는 판소리를 할 수 없었던 조선 후기의 최초의 여성 판소리꾼 진채선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알림. 영화를 소재로 여성이라는 편견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나누고, 편견에 맞서서 처음으로 시도한 경험에 대한 격려방법과 중요성 강조

○ 사 진



시네마 테라피 진행 모습

영화소개 및 성평등 이야기
나눔1영화소개 및 성평등 이야기
나눔2

○ 참여 기관 현황

번호	소재지	기관명	인원수	참여횟수
1	강서구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20	1
2		강서노인종합복지관	4	1
3	관악구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19	2
4		중앙사회복지관	113	8
5		푸른햇살데이케어센터	45	11
6	금천구	혜명양로원	38	4
7	동작구	나눔복지회꿈과희망	261	12
8		대방종합사회복지관	525	12
9		동작노인종합사회복지관	600	12
10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312	11
1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370	10
12	서초구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6	1
13	성동구	성동노인종합복지관	133	9
14	영등포구	대길사회복지재단	22	9
15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11	1
16		신길종합사회복지관	62	2
17	용산구	용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113	3
18	종로구	동대문쪽방상담센터	7	1
19		돈의동 사랑의 쉼터	52	6
20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	11	1
21	중랑구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47	2
22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40	1
총계	총 11개 자치구/ 22개 기관		2,811	

○ 사 진



시네마 테라피 진행 모습2



영화소개 및 성평등 이야기
나눔3



영화소개 및 성평등 이야기
나눔4

□ 기관 담당자 1차 간담회

- 일 시: 2016. 4. 15(금) 10:00~12:00
- 장 소: 재단 1층 로비 등
- 참 석 : 노인복지시설 담당자 10인, 재단담당자 2인

구분	이름
복지관 및 복지시설 담당자	박○○, 김○○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유○○(선의관악사회복지관)
	강○○(대방종합사회복지관)
	형○○(나눔복지회 꿈과희망)
	김○○, 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한○○(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신○○(푸른햇살데이케어센터)
	김○○(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재단	이주영
	이보미

○ 내 용

- 재단 소개
- 여성 독거 어르신 문화나들이 사업의 목적 및 기대 효과 소개
- 2016년 어르신문화나들이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 소개
-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 기관의 실무자 의견 나눔
- 복지관 담당 변경 등 사업 진행의 실무적 상황 공유



□ 기관 담당자 2차 간담회

- 일 시: 2016. 10. 14(금) 10:00~12:00
- 장 소: 재단 1층 로비 등
- 참 석 : 노인복지시설 담당자 15인, 재단담당자 2인

구분	이름
복지관 및 복지시설 담당자	이○○, 박○○, 이○○, 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유○○, 배○○(성동노인종합복지관)
	권○○, 한○○(대방종합사회복지관)
	유○○, 김○○(동작종합사회복지관)
	안○○, 김○○(중앙사회복지관)
	한○○(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신○○(푸른햇살데이케어센터)
	형○○(나눔복지회 꿈과희망)
재단	김미영
	이보미

○ 내 용

- 재단 소개
- 여성 독거 어르신 문화나들이 사업의 목적 및 기대 효과 소개
- 2016년 어르신문화나들이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 소개
-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 기관의 실무자 의견 나눔
- 복지관 담당 변경 등 사업 진행의 실무적 상황 공유



2)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

□ 추진성과(추진실적)

○ 목표대비 달성도

- 횟수 : 12회 시행 (100% 진행, 총 12회 목표)

□ 홍보실적

- 각 행사시 서울시내 약 200개 기관에 공문발송 (총 2,400개 기관)

7. 사업평가

□ 복지관 담당자 평가 1

- 일 시: 2016. 4. 15(금) 10:00~12:00

- 장 소: 재단 1층 로비 등

- 참 석 : 노인복지시설 담당자 10인, 재단담당자 2인

- 복지관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지만, 여성 어르신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는 않아 재단에서만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
- 복지관 등 기관의 생활에서도 여성 어르신이 다수인 경우가 많아, 본인 일상에서 성 불평등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음. 성평등에 교육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으므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처럼 이해가능한 접근 필요
- 사회복지기관별 이용 어르신의 활동력에 차이가 있어, 재가센터의 경우 여성 독거 어르신의 일상과 정서를 풍요롭게 할 영화 프로그램 필요

- 한국영화가 상영이 중요. 자막이 나오는 영화는 문해능력이나 시력의 문제로 선호되지 않으며, 현행 방식처럼 한국영화 중심의 선정 필요

□ 복지관 담당자 평가 2

- 일 시: 2016. 10. 14(금) 10:00~12:00
- 장 소: 재단 1층 로비 등
- 참 석 : 노인복지시설 담당자 15인, 재단담당자 2인
 - 복지관 차원에서도 예산 대비 어르신문화나들이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 어르신문화나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복지기관 어르신들의 관심도가 높고 매달 영화상영일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음
 - 어르신들이 문화나들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사회활동 및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음.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사회로 나오는 기회가 됨
 - 2016년에도 어르신문화나들이 프로그램이 지속되길 원하는 의견이 많음

□ 담당자 평가 및 의견

- 성평등적 내용 전달 필요
 - 영화가 담은 다양한 의미를 해석해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
 - 대중적이고 오락적인 영화라도 성평등과 관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면 참여자 모집과 프로그램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음
-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여성 어르신들의 관심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소재를 다룬 다양한 영화 선정 및 프로그램 필요
 - 외국 영화는 자막을 읽어야하는 관계로 문장이해력이나 시력의 문제가 동반

되어 선호되지 않으며, 올해 상영되고 있는 한국영화 중심의 영화 선정

□ 외부 전문가 평가

◎ 중간심의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

중간 심의의견 및 반영사항		
심의 항목	평가결과	반영사항
1. 사업기획의 적정성	1. 재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절 2. 여성독거어르신은 문화예술 취약층인 당사자들에게 젠더감수성과 문화 감수성을 제언하는 사업이 더 확장될 필요가 있음 3. 문화 소외계층의 시니어 여성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임. 지속 필요	- 향후 사업계획시 고려하겠음
2. 사업수행과정의 체계성	1. 현재 선정작품이 ‘드라마’, ‘영화’ (장편) 위주로, 장르의 다양화 및 상영시간의 조절 (중단편 및 TV 드라마 에피소드 편집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오랜 기간 진행한 사업이라 안정성과 연대단체들이 신뢰를 갖고 해오고 있음. 시네마세라피를 잘 수행해오고 있음 3. 영화선정 등에서는 적절한 내용으로 선정되고 있음.	- 향후 사업계획시 고려하겠음
3. 사업내용의 전문성 및 충실성	1. 시네마세라피가 포함된 영화상영 프로그램으로 성평등 주제 및 감수성을 환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2. 여성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전문성 중요. 시네마세라피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성평등 감수성을 전달하고 있음 3. 영화 외에 확장되고 폭을 넓히면 좋겠음	-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계획시 고려하겠음
4. 사업결과의 효과성 및 선도성	1. 참여자(관람객)으로부터 직접적 피드백을 얻기 어려운 조건임을 감안, 영화상영 후 간단 하더라도 ‘소통’의 시간이 필요할 것 2. 시네마세라피를 통해 성평등 의식, 다양한 내용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화상영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음. 시네마세라피를 확장하여 치매예방, 그림, 노래 등 프로그램과	- 예산 및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고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향후 사업계획시 고려하겠음

중간 심의의견 및 반영사항		
심의 항목	평가결과	반영사항
	연결해서 특화하고 강화 필요 3. 참여자들에게는 여전히 필요성이 존재함. 보다 쉬운 참여방식 개발할 필요가 있음	
5. 기타 (향후 사업내용 보완 방향 및 추진에 대한 제언)	1.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에 성평등 주제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한국 고전영화 포함), 여행 건강 등 여성노인의 관심사와 연결된 프로그램 필요 2. 여성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 더 다양한 확대 필요 3. 영화 뿐 아니라 드라마(디마프)1회분량을 활용하면 좋겠음. 영화와 드라마 상영후 반드시 피드백 시간을 배치하면 좋겠음. 찾아가는 문화나눔을 진행하면 좋겠음. 자치구별 적절한 장소가 많음. 어르신들이 청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막 등을 제공하면 좋겠음	- 시네마세라피 등에서 여행, 건강 등 여성노인의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 - 향후 저작권 사용료 및 베리어프리 영화 상영료 등을 고려해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예정

◎ 최종심의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

최종 심의의견 및 반영사항		
심의 항목	평가결과	반영사항
1. 사업기획의 적정성	2. 여성독거노인의 증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독거노인의 현실을 감안, 여성 가족정책의 대상을 위한 고민이 반영된 사업 3. 2015년 가족, 공동체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확장하여 2016년 주제를 질병, 죽음, 문화, 대인관계 등으로 넓힘으로써 여성 독거어르신들의 삶에 더 가까워짐. 실질적인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여성독거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갖지 못한 권리 및 자아존중감을 회복 기회 제공에 긍정적 평가	향후 사업계획에 평가 의견을 반영할 예정
2. 사업수행과정의 체계성	2. 전문가 및 노인(복지)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니즈 파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3. 2015년 예산에 비해 축소된 점이 아쉽지만, 시네마세라피 프로그램에 집중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중간매개자인 기관담당자들과의 간	향후 사업계획에 평가 의견을 반영할 예정

최종 심의의견 및 반영사항		
심의 항목	평가결과	반영사항
	담회를 통해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들을 나누고, 의견을 반영하고, 젠더감수성이 제대로 여성 시니어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적정함.	
3. 사업내용의 전문성 및 충실성	1. 복지관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취지와 성평등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나눈 후, 복지관 담당자의 의지가 여성독거어르신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피드백이 필요함. 영화상영과 문화 나눔이라는 취지는 전달된 것으로 보이나, 젠더감수성을 다룰 수 있는 질문과 진행이 보이지는 않음. 이후 이를 반영해 새로운 계획 설계가 있어야 함 2. 가족, 공동체, 역사, 성차별, 계급, 질병, 결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영화들을 선정하여 여성노인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자 노력함 3. 간담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이 여성 독거노인이 경험하는 소외, 사회문제에 공감하게 하고, 시력이나 문해능력을 고려한 영화선정 및 세라피는 여성시니어분들이 영화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성평등 교육과 문화 경험이 부재한 삶을 살아온 한국 여성시니어분들에게 성평등의식과 여성권리를 간접적으로 공유할 있는 시네마테라피는 사업 목적에 부합	- 향후 사업계획시 젠더문제를 연령대에 맞게 전달할 효과적 방법을 모색할 예정 - 향후 사업계획시 더 다양한 주제로 성평등 주제로 소통할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할 예정
4. 사업결과의 효과성 및 선도성	2. 여성독거노인의 외출(나들이) 기회로 활용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화 관람 후 참여자의 피드백 및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현재는 기관 관계자의 피드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개봉한 한국영화 중 선택함으로써 이 사업은 첫 번째,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두 번째, 시네마 세라피스트를 통해 영화에서 젠더감수성, 성평등적 관점에서 사업을 풀어감으로써 누락될 수 있는 여성노인 주체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 제공. 세 번째 중간매개자인 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관 관계자 역시 주체적으로 프로그램과 계획하는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점도 긍정적임. 본 사업의 진행은 독거 어르신	- 향후 사업 계획시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할 예정

최종 심의의견 및 반영사항		
심의 항목	평가결과	반영사항
	에게 문화적 혜택 및 삶의 요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내실 있고 완성도 있음	
5. 기타 (향후 사업내용 보완 방향 및 추진에 대한 제언)	1. 참여 자치구가 10개(19개 기관)인데, 최근 수년간 참여 자치구 및 기관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의 해당자에게도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함. 참여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 불참 자치구에 적극 홍보할 필요 있음 영화관람 전후 참여자들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꼭 마련되었으면 함. 단지 영화에 대한 설명과 영화 관람만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람. 더불어 2시간 영화상영 후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상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건강, 여행, 정치, 재혼, 음식(요리), 여가등 성평등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드라마 뿐만 아니라 다큐 등 영화 장르의 다변화도 필요. 중·단편영화 및 미니 드라마(예: ‘드라마 스페셜’) 상영도 고려해 볼 것.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 또한 ‘아웃리치’ 시간을 배정해서 기관에 직접 나가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음. 지속적인 사업운영으로 수혜자를 더욱 확대하길 바람 3.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성평등 감수성을 전달하는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 진행에 긍정적으로 평가. 여성독거어르신이 가지고 있을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욕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하여 더 깊이 있고 철학적 사고가 결합된 내실 있는 사업이 되길 기대함	- 향후 서울 내 다양한 자치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 - 향후 사업 참여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

8. 향후 개선계획

▣ 다양한 소재의 영화 상영

- 여성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영화 및 이야기 소재 발굴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중간심의에서 나왔던 의견대로 향후 프로그램 계획시 배리어프리 영화나 TV 용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예정

▣ 프로그램의 다양화 진행

- 영화 상영 프로그램 안에 시네마 세라피의 내용을 다양하게 하거나, 제한적이지만 참여형 프로그램을 시도할 예정

※ 참 고

□ 유사 프로그램

〈참고〉 여타 어르신 영화 상영 프로그램

1. 서울노인영화제



영화를 통해 어르신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2008년부터 진행되는 영화제. 최근 이 영화제는 세대별 이해를 위해 소통을 주제로 영화제를 개최함. 어르신 스스로가 만든 영화를 상영하고, 또한 청년이 제작했지만 어르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초청하기도 함. 활동성 있는 노인들과 노인문화에 관심이 있는 다른 세대가 연대감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그러나 여성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이 특화되지 않음

2. 복지관 영화 상영 프로그램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영화상영 프로그램은 주거지 가까운 지역에서 여성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상영 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고, 전문 상영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전반적으로 복지관 담당자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적음

□ 참고 프로그램

1.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흰머리 휘날리며

- 내용: 지역의 노년여성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건강한 생활을 함께하기 위해 근력을 키우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든 프로그램
- 시사점
 - 여성노인이 건강을 주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활동진행
 - 여성노인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욕구 및 건강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킴

2. 한국여성민우회: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

○ 내용: 변화하는 노년 문화, 노년에게 어울리는 패션, 죽음에 대한 이해, 노년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강좌 프로그램

○ 시사점

- 여성노인의 삶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체성 강조
- 여성노인의 관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죽음에 대한 준비 등의 소재로 인문학적으로 접근

2016 사업자료-23

성평등 의제 국내외 확산 프로젝트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김창연 문기현 이보미
발행일 2016년 12월
인쇄처 (주)행복드림(여성장애인가업)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림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